소년단

1961. 4

동시

만경대의 새 봄

김 철

양지쪽 비탈길
　잔디 푸른 길
만경봉 언덕으로
　뻗었습니다.

어린 시절 원수님이
　밟으신 길을
오늘은 우리들이
　올라갑니다.

한 그루 나무
　한 포기의 풀에도
원수님의 손'길이
　닿으셨으니,

모든 나무 나무들을
　안아 보고픕니다.
푸른 풀 포기마다
　뺨을 대고픕니다.

왜놈에게 빼앗겼던
　조국을 찾으시려
만경대를 떠나셨던
　우리의 원수님,

처창즈 깊은 밀림
　우등'불가에서도
대원들께 들려주신
　다정한 이야기는—

아름답고 보배로운
　조국 산천 이야기,
나서 자란 만경대
　고향의 이야기.

아! 그 처럼
　고향을 위하셨기에
그 처럼
　조국도 사랑하신 이,

그 처럼
　조국을 위하셨기에
그 처럼
　원쑤도 미워하신 이,

원수님의 붉은 뜻
　가슴에 안고
우리는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해마다 봄이 오면
만경봉에 올라서
저 높은 하늘과
　키를 대여 봅니다.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가 되기 위하여 항상 준비하자!

소년단 1961년 4호 내용

이번 호부터 《소년단》에는 김 일성 원수님의 어린 시절을 배우며 본 받는 전체 소년단원들에게 도움이 될 원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실었습니다.
그 밖에도 조선 로동당 제 4차 대회를 앞둔 소년단원들의 결의와 투쟁, 영예의 모범 분단 칭호에 빛나는 평양시 삼마 중학교 제 8분단 위원장 리 석곽 동무를 비롯하여 학습과 동무를 돕는 데서 모범적인 여러 학교 소년단원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김 일성 원수님의 어린 시절을 배우며 본받자!

김 일성 원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

글 윤 복진

편집부는 김 일성 원수님의 어린 시절을 배우며 본 받는 전체 소년단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난 3월 13일 원수님의 삼촌 어머님과의 상봉 모임을 조직하였습니다.

상봉 모임에는 원수님의 삼촌 어머님과 작가 윤 복진 선생, 그리고 만경대 중학교의 소년단원 동무들이 참가하였습니다. 좌담회에서는 원수님의 어린 시절을 직접 한집에서 보내신 삼촌 어머니께서 많은 귀중한 말씀을 들려 주시였습니다.

이 귀중한 말씀과 기타 자료에 근거하여 작가 윤 복진 선생이 쓰신 글을 이번 호부터 싣습니다.

☆ 가난과 싸워 이긴 집

원수님은 가난한 농사 집에 태여 나셨고 혁명가의 집에서 자라나셨습니다.

원수님의 선대 할아버지들은 대대로 농사를 지으며 살아 왔습니다. 백 여 년을 만경봉 밑에 자그마한 집(지금의 원수님의 집 자리)에서 살았습니다.

그 집은 평양에 사는 리가라는 부자놈의 산당 집이였습니다.

삼촌 어머님이 열 다섯 살 때 시집을 오셨을 적(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도 그 산당 집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단간 집에서 열세 식구가 오붓이 의좋게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도 세상살이가 어려워 삼시로 죽을 자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촌 어머니는 자기를 중매한 할머니를 찾아 가서

《이놈의 할미야, 어델 시집 보낼 데가 없어서 죽만 먹는 집에 중매를 했노》하고 《원망》까지 하셨다고 합니다.(삼촌 어머니는 웃으며 이런 말씀을 해 주시였다)

물론 삼촌 어머니도 가난한 농민의 딸이였으니까요.

그때 만경대는 두메산'골 가난한 마을로서 원수님이 사시던 남리 마을은 10여 호 남짓한 작은 마을이였습니다.

밤 낮 없이 흘러 가는 푸른 대동강 물을 논 발 아래 두고도 하늘만 쳐다 보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가물은 해마다 들었고 귀중한 곡식은 말라 갔습니다. 그래서 벼 농사는 아주 적게 하는 수 밖에 없었습니다. 조랑, 피랑, 모밀을 주로 심었습니다.

원수님의 어머님은 좀처럼 쌀알 구경을 못하셨습니다. 참으로 입쌀은 황금보다 귀했습니다. 그래서 우물'가에 도랑을 치고 거기에 벼를 심어 닷 되 가량의 벼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물이 귀한 이 마을에서 한 해를 피땀을 흘려 농사를 지어도 지주놈한테 빼앗기고 왜놈한테 뜯기고 해서 추수를 하고 나면 반년 먹을 죽 식량도 못되였습니다.

이 마을 농민들은 농사를 짓는 한편 강에 나가 고기를 잡아 팔고 짐'배도 부리고 나무'잎만한 작은 배를 타고 풍랑이 사나운 서해 바다로도 나가 고기를 잡으며 겨우 살아 갔습니다.

어머니들은 낮에는 농사 일을 하고 밤에는 무명 나이를 하여 어려운 살림을 보태여 나갔습니다.

원수님의 집도 바로 그렇게 살아 왔습니다.

원수님 할아버지는 집안 사람들을 보고 《어려운 세상에 밤 낮으로 일을 해야 살아 간다.》라고

언제나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씀 대로 원수님 온 집안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부지런히 일을 하시였습니다.

할머니는 밤을 세우다싶이 하며 물레를

《원수님의 삼촌 어머님을 모시고》

저어 실을 뽑았습니다.

어머님은 낮에는 밭'일을 하시고 빨래는 달밤에 하시였습니다.

이렇게 원수님 집은 근로하며 가난과 싸워 이겨 나갔습니다.

돌절구

산 밑에 초가집에
돌 절구 하나…

누가 누가 찧었나
돌 절구가 닳았네

로할머니 찧었네
어머니도 찧었네

숫한 손이 찧어도
입쌀 한번 못 찧었네

뻐꾸기 뻐꾹뻐꾹,
보리'고개 넘을 때는

피'방아만 찧었네
안타깝게 찧었네.

☆

산 밑에 초가 집에
돌 절구 하나…

몇몇 대를 찧었나
돌 절구가 닳았네

천금보다 귀한 손주
어린 원수님

큰 길 나선 그 날도
조 방아만 찧었네

할머니는 쿵쿵,
가슴이 아팠네

그렇지만 안 우셨네
입쌀 찧날 바라봤네

산 밑에 초가 집에
돌 절구 하나…

무쇠보다 굳센이들
이 절구 찧었네.

(만경대 시초중에서)

내가 읊은 이 《돌 절구》는 지금도 원수님 고향 집에 놓여 있습니다. 이 돌절구는 석수가 곱게 다듬어 만든 것은 아닙니다. 산에 있는 작은 바위'돌 하나를 주어다가 원수님의 증조 할아버지가 손수 만든 것입니다.

처음에는 두 되가량 들었는데 백 여 년을 찧고 찧는 동안에 지금은 닷 되가량 찧을 수 있는 것으로 되였습니다.

참으로 원수님 집안 어른들은 무쇠보다 굳센 분들이였습니다. 그 어려운 가난을 싸워 이겨 나왔습니다.

☆ 원쑤와 싸워 이긴 집

유구한 력사와 함께 푸른 대동강이 굽이쳐 흐르는 만경봉 한 기슭에 자리 잡은 자그마한 초가 집은 비단 어려운 가난과 싸워 이긴 것만이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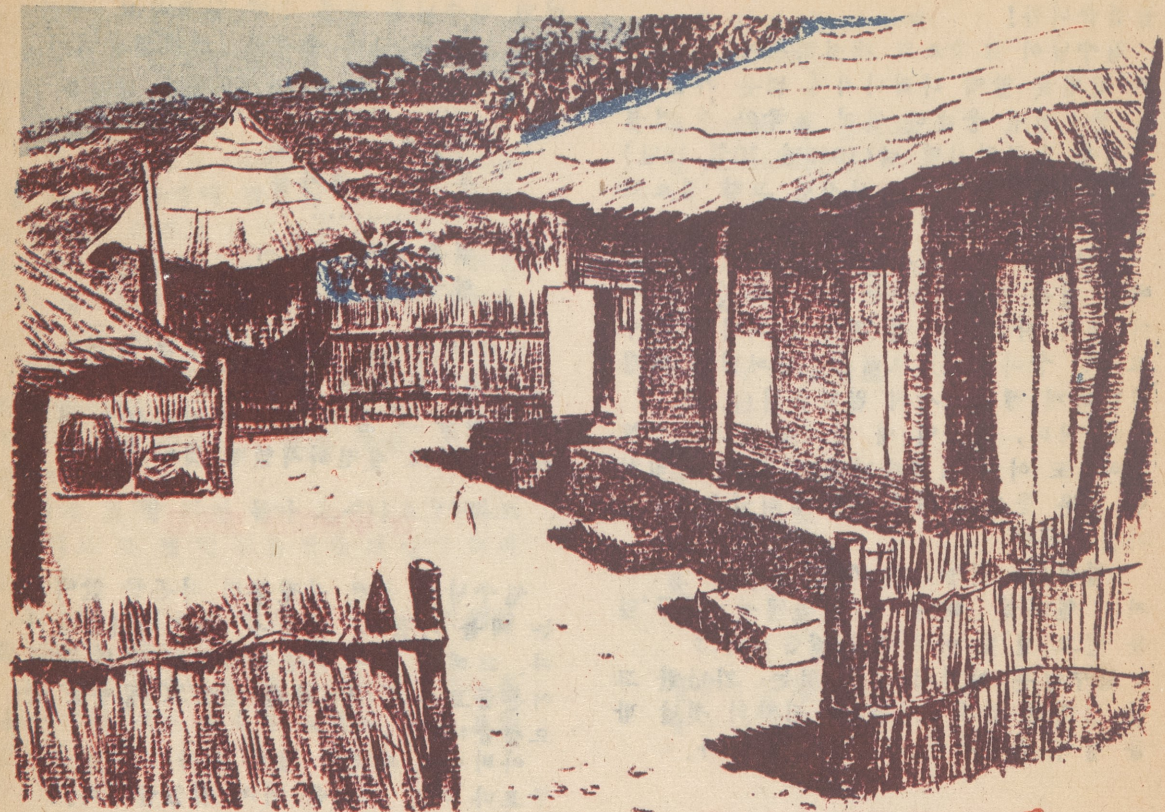
자그마한 이 초가 집은 간악한 원쑤와 싸워 이겼고 온 세상에 그 영예를 떨친 집입니다.

이 이름 없던 초가 집에서 원수님은 태여 나셨고 자라시였습니다.

어린 원수님은 부지런하고 순박한 이 집에서 로동과 절약, 참된 인간의 사랑과 삶의 굳센 의지를 보고 듣고 배웠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르고 어떤 것이 착하고 선한 것인가 배웠습니다. 자연이 더없이 아름다운 이 고장에서 우리 조국의 아름다움을 가슴 깊이 새겨 보셨고 조국이 목숨보다 더 귀중하다는 것을 부모님을 통하여 뼈에 사무치도록 느끼기 시작하였습니다.

원수님의 집은 참으로 애국자의 집이였고 혁명가의 집이였습니다.

원수님의 아버님이 내 나라를 다시 찾겠다고 독립 운동에 목숨을 바쳐 나서자 칼찬 왜놈들은 죄 없는 이 집 어른들을 못 살게 굴었습니다.

아버님이 큰 뜻을 이루지 못하시고 감옥에서 나와 원통하게도 눈을 감으시자

《원수님의 고향 집》

그 뒤를 이어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우리 민족의 영웅이신 원수님이 삼천만 인민의 뜻을 받들어 일어서 싸우셨습니다.

원수님의 삼촌 아버지 형권 선생도 일제와 싸우시다 서울 서대문 형무소에서 돌아 가셨습니다.

원수님은 몇 백배나 더 많고 발톱까지 무장한 포악한 일제와 15개 성상을 하루같이 싸워 원쑤놈들을 물리쳤습니다.

이 성스러운 싸움에서 원수님의 둘째 동생이신 철주 선생도 조국을 위하여 젊은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참으로 원수님 집은 진정한 애국자의 집이였으며 빛나는 혁명가의 집이였습니다.

포악한 일제도 이 집을 세상에 다시 없는 《무서운 집》으로 생각하며 말만 들어도 벌벌 떨었습니다.

원수님이 눈보라 사나운 장백 준령을 넘나드시며 동에 번쩍, 서에 번쩍, 번개처럼 원쑤놈들을 족칠 때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삼촌 아버지 형록 선생도 굽히잖고 싸우셨습니다.

원수님이 압록강을 넘나드시며 조국으로 진군하실 때 왜놈 헌병, 순사 나부랭이, 형사 나부랭이, 그 앞잡이 개놈들은 눈을 뒤집고 새까맣게 기여 들었습니다. 총칼과 몽둥이로, 위협과 거짓부렁으로, 밤낮 없이 달려 들었습니다.

그러나 원수님은 백설 속에 높이 솟은 소나무처럼 굽히지 않고 긴 세월을 하루같이 싸우셨습니다.

간악한 일제 원쑤놈들과만 싸우시지 않았습니다. 일제 앞에 알짱거리는 지주놈과도 싸우셨습니다.

지주놈들은 《나쁜 집》이라 하며 땅을 빼앗고 소작도 주지 않았습니다. 얼마 안되는 농자금도 꾸어 주지 안았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아버지와 삼촌 어머니는 한 치의 땅이라도 알뜰 살뜰 다루었습니다. 산 밑에 돌짝 밭도 한 평 더 일쿠어 곡식을 심으셨고 삯 밭갈이, 삯 동, 갈품을 팔면서 살아 왔습니다.

그러니 그 시기에 살림은 얼마나 어려

웠겠습니까!

원수님이 조국으로 개선하시여 처음으로 인민들 앞에 나타나시여 넓은 가슴 속에 품으셨던 웅대한 인민 조국의 새 건설 계획을 발표하시던 날(1945년 10월 12일) 그 날 밤 처음으로 그리시던 고향 집으로 찾아 오셨습니다.

그 날 밤 원수님은 문도 없는 고향 집에서 멍석 우에서 주무셨습니다.(그때 집이 금시 허물어져 갈 지경이 되여서 손수 고치는 중이였다) 그래서 할머니는 여간 미안하게 생각하시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세상에 내 집처럼 좋고 정든 집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하시며 해'빛처럼 밝은 웃음을 띄우시며 할머님을 위로 하셨습니다.

《할머니,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저는 열다섯 해나 눈 벌판에서 나무'잎을 덮고 별'빛 아래에서 잤습니다.》

원수님은 이렇게 문도 없는 가난한 고향 집에서 감개 무량한 귀향의 첫날 밤을 멍석 우에서 주무셨던 것입니다.

☆ 아버님이 들려 주신 노래

원수님의 집은 몹시 가난하였으나 어린 시절 원수님은 언제나 명랑하시였고 씩씩하게 자라셨습니다.

해만 뜨면 많은 동무들이 저마다 놀자고 원수님을 찾아 들었습니다. 어린 원수님은 동무들을 거느리고 말 타기 놀음, 왜놈 잡는 군대 놀이에 넓은 마당은 언제나 떠들썩하였고 골목 길은 와자지껄 활기가 띄였습니다.

어린 원수님의 둥근 얼굴에는 가난한 빛이 떠돌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보름'달처럼 밝고 환하시였습니다.

원수님은 어린 시절, 정신이 맑고 아주 총명하시였으며 언제나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으며 굳세게 자라셨습니다.

아버님은 짬만 있으면 어린 아들에게 아름다운 조국의 강산과 용감하게 침략자들을 물리친 우리 나라의 이름 높은 장수들의 이야기를 들려 주시였습니다.

아버님은 어린 아들을 몹시 사랑하시였고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아버님은 자주 어린 원수님을 무릎 우에 앉히시고 손수 지은 노래를 들려 주시군 하시였습니다.

………………
이웃에는 화목동
부모에는 효자동
………………
얼른 잠간 자라서
영웅동이 되여라.

어린 원수님은 아버님의 노래 속에 담긴 아버님의 높은 뜻을 귀담아 들으셨고 차츰 차츰 그 높은 뜻을 리해하셨고 마침내는 그대로 실천하시였던 것입니다.

☆ 부모에는 효자동

원수님은 유년 시절부터 어른들 앞에서는 례를 바쳤고 언제나 공손하시였습니다. 그래서 집안 어른들에게는 물론 동네 어른들로부터 귀여움을 받았고 칭찬을 들으셨습니다.

아버님은 저녁에 집에 돌아 오시면 누구보다 어린 아들을 먼저 찾았습니다.

《애 중손아》하고 부르시면 아무리 재미있는 놀이를 하다가도 뚝 멈추고 일어섰습니다. 원수님은 얼른 옷에 묻은 먼지를 털고 옷고름을 단정히 고쳐 매고서는

《네》하고 아버님 앞에 나서군 하시였습니다.

《그래, 동무하고 싸우지는 않았니?》

《안 싸웠어요.》

아버님은 어린 아들이 무슨 놀이에서나 기어이 이겨야만 성이 차하는 것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제 배운 노래는 잘 외우니?》 하고 물으시면 어린 원수님은 아버님 앞에 척 나서서 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시는 것이였습니다.

………………
이웃에는 화목동
부모에는 효자동
………………

아버님은 아무리 일이 바쁘시더래도 어린 아들이 어떻게 곧바루 자라나 언제나 주의 깊게 살피시였습니다. 어린 원수님은 아버님이 말씀을 어기지 않고 언제나 실천에 옮기셨습니다.

원수님은 점점 자라시면서 아버님을 무한히 따랐고 훌륭한 아버님을 마음 속으로 존경하였습니다.

그후, 아버님이 《독립 만세 사건》으로 1년 가까이 감옥에 갇혔을 때, 어린 원수님은 어느 하루도 아버님을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어떻게 하면 하루 빨리 집으로 모셔오나.》하고 깊은 생각에 잠겨 있군 하였습니다.

원수님은 동무들과 재미 나게 놀다가도 문득 아버님이 생각 나면 집으로 뛰여 와 무명을 짜는 어머님을 보고 묻는 것이였습니다.

《이제 몇 밤 자면 돌아 오시나요?》하고 하루에도 그 몇 번 같은 말을 되 묻군 하시였습니다.

그만큼 원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님을 지극히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그 때의 원수님의 이 아름다운 심정을 나는 나의 서툰 붓으로 노래에 옮겨 보았습니다.

몇밤 자면 울 아버지
돌아 오시나…

대동강이 다 풀려도
안 오시나요.

☆

두견새 울어 예도
안 오시나요.

개가 멍멍 짖어도
좇아 나가고

사립문이 덜컥해도
뛰여 나가고

울 아버지 안 오시나
왜 안오시나…

☆

진달래가 활짝 피면
돌아 오시나

유년 시기 아버지의 교양을 받으시는 김 일성 원수

백밤 자면 이기고
돌아 오시나

나는 언제 어른되나
원쑤를 치나…

(만경대 시초 중에서)

☆ 《여기는 엄마 자리야》

원수님은 어린 시절 어머님을 몹시 사랑하였고 더 없이 위하였습니다.

원수님은 어머님을 해와 달처럼 생각하시였습니다.

(하루 종일, 낮에는 밭에 나가 일하시고 밤에는 베틀에 앉아 밤 깊도록 딸깍딸깍 무명을 짜시는 어머님은 얼마나 힘드실가…)

어린 원수님은 잠'자리에 누울 때면

《여긴 엄마 자리야》하고 아래'목을 가리키며 어머님을 따뜻한 자리에 모시군 하였습니다.

원수님 집은 일년 삼백 륙십오 일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쉬지 않고 온 집안이 몽땅 나서 농사를 지었으나 지주놈들한테 빼앗기고 왜놈들한테 뜯기고 하여 언제나 삼시로 죽을 자셨습니다.

하늘이 훤히 비치는 죽도 마음껏 자시지 못하셨습니다.

긴긴 봄날 하루의 고된 농사'일을 마치고 저녁 상에 마주 앉으시면 어린 원수님은 한술 두술 덜 드시고 남긴 죽을 말 없이 어머님 앞에 내미시고는 물러 앉군 하시였습니다.

그러면 어머님은 웃으시면서 그 죽을 할머님께 권하시군 하였습니다.

할머님은 봄 가을 할 것 없이 언제나 물레를 저어서 실을 뽑군 하시였습니다.

그러면 할머님은

《증손아, 어서 많이 먹고 빨리 커라》하시며 그 죽을 어린 손주 앞에 내미시는 것이였습니다.

이처럼 집은 비록 가난하였으나 새'별보다 빛나는 아름다운 인정은 온 집안에 꽃을 피웠던 것입니다.

어머님에 대한 원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가슴을 치는 아름다운 이야기는 내가 들은 것만 하여도 수태 많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 날이였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으시고 무명을 짜신다, 방아를 찧으신다, 빨래를 하신다 끝 없는 가난과 로동에 시달린 어머님은 그만 병이 나서 자리에 눕게 되셨습니다.

어머님은 웬만한 병이면 자리에 눕는 법이 없었습니다. 가난한 집이라, 병이 난대도 약 한첩 쓰기 어려웠습니다. 웬만한 병이면 어머님은 팔을 둥둥 걷고 땀을 흘리시면서 일로 병을 물리치군 하였습니다.

그러시던 어머님이 이번만은 어쩔 수 없었던지 자리를 펴고 눕고 말았습니다.

어머님은 하루 밤낮을 아무 것도 자시지 않았습니다.

어린 원수님은 밤이 깊어도 주무시지 않고 어머님 옆에서 구환을 하시였습니다.

손 발을 주물러 드리며 불'덩이 같은 머리를 짚어 보면서 찬 수건으로 머리를 식혀 드렸습니다.

《엄마, 물 좀 마셔요.》

《………………》

어머님은 힘없이 고개만 저으셨습니다.

어린 원수님은 그만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원수님은 좀처럼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밤만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다가 어린 원수님은 바깥으로 뛰여 나갔습니다. 얼마 후에 할머님이 쑤신 더운 미음을 두 손으로 받혀 들고 들어 왔습니다.

《엄마, 더운 미음이야요.》

《할머님이 쑤신 미음이야요.》

그러나 어머님은 좀처럼 응하시지 않았습니다.

《아가, 저 어린 것의 정성을 보아서라도 좀 들렴》하고 할아버지가 말씀하시자 그제사 어머님은 일어나 미음을 조금씩 마시기 시작하시였습니다.

며칠 후 어머님의 병환은 깨끗이 나았습니다.

어린 원수님의 그 정성이 어머님의 병을 낫게 하였던 것입니다.

☆ 한번만 타이르면

원수님 고향 집 뒤'곁에는 커다란 바위 하나가 있었습니다.

원수님은 어렸을 때 이 바위를 미끄럼대처럼 타며 놀았습니다. 그래서 《썰매 바위》라고 일러 오고 있습니다.

어머님은 아침 저녁 우물 길에서 어린 아들이 동무들과 《썰매 바위》를 타며 씩씩하게 노는 것을 보았습니다.

원수님은 그 바위를 마치 높은 산을 오르고 내리는 것처럼 신이 나게 타며 놀았습니다.

그바람에 옷이 쉬이 더러워지고 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무런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원수님이 좀 철이 들자 어느 날 어머님은 한창 재미나게 《썰매 바위》를 타며 노는 어린 아들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증손아, 너는 가난한 집 아이가 아니냐.》

《가난한 집 아이는 썰매도 못 타나요?》

어린 원수님은 성이 나서 말하는 것이였습니다.

《너도 좀 생각해 보렴, 우리 집안 형편을…》하고 어머님이 조용히 말씀하시자 원수님은 잠자코 자기 옷을 보았습니다.

썰매 놀이에만 정신이 쏠렸던 어린 원수님은 그제사 눈을 뜨셨던 것입니다.

어머님이 밤 낮으로 무명 나이 하시는 모습이 눈에 떠오르며 할머님이 밤이 깊도록 물레를 젓는 모습들이 떠 올랐던 것입니다.

더구나 할머님은 한 방울의 기름이라도 아껴 쓰시겠다고 어둔 밤에도 불을 켜지 않고 실을 뽑지 않으셨던가…

어린 원수님은 그 날에야 새롭게 느껴지며 가슴이 뭉클하였던 것입니다.

《엄마, 인제부터 썰매 바위는 안 탈래요》

그러한 맹세가 있은 후로부터 《썰매 바위》는 타시지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는 말 타기, 왜놈 잡는 군대 놀이에 열중하셨던 것입니다.

☆ 잘 익은 복숭아는 먼저 할아버지에게

원수님의 할아버지는 참으로 부지런하셨습니다.

땅이 없는 할아버지는 산 귀퉤기에 자그마한 밭을 일구어 팥을 심었고 논'두렁 밭'두렁에는 빈틈 없이 콩을 심었습니다.

집 안팎에는 한치의 땅도 놀리지 않았습니다.

울타리에는 호박, 지붕에는 박, 앞 뜰에는 복숭아, 살구 나무, 뒤'울에는 앵두 나무를 심고 힘써 가꾸셨습니다.

봄이 오면 원수님 집은 꽃 속에 묻히고 가을이 되면 열매 속에 묻혔습니다.

원수님은 부지런한 할아버지를 따랐고 무척 위하였습니다.

어느 여름 날이였습니다.

어린 원수님은 익지 않은 파란 복숭아 하나를 땄습니다. 채마를 가꾸던 할아버지가 이것을 보셨습니다.

《애 증손아 너 무엇을 땄니?》

《복숭아 한 알을 땄어요.》하고 익지도 않은 복숭아 한 알을 보이는 것이였습니다.

《이건 아무 맛도 없단다. 이댐에 붉으스레 익거들랑 따 먹자꾸나.》

열매 익는 가을이 되여 뜰 안에 복숭아가 붉게 익었을 때 원수님은 제일 잘 익은 복숭아를 손수 골라서 할아버지에게 드리고 그리고서 동무들하고 나눠 잡수시였던 것입니다.

원수님은 아무 어른이나 다 존경하였던 것은 아닙니다.

소를 몰아 논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땀을 흘리며 귀중한 곡식을 가꾸는 어른들을 존경하였던 것입니다.

비단 어른들 뿐만이 아니였습니다. 동무들까지도 그러하였습니다. 지주놈의 아들과는 애당초에 놀아 주지도 않았고 칼을 찬 왜놈의 아이들은 집 앞이나 골목에 그림자도 얼씬하게 못하였던 것입니다.

☆ 언제나 화목동

원수님의 할아버지는 말이 없는 분이였습니다.

괴로운 일을 당하여도 꾹 참고 나가는 어른이였습니다.

때로는 농사 일이 고되고 지주놈들에게 업신여김을 받고 그 우에 왜놈들에게 짓눌리고 하여도 꾹 참으시며 살아 나갔습니다.

많은 식구들을 거느시리고 어려운 살림을 말없이 꾸려 나가셨습니다.

어느 해 여름이였습니다.

밭에 나가셨다 들어 오신 할아버지는 마당에 들어 서자마자 할머니를 보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아니 그래, 임자는 밭에는 김이 묵어나가는데 밤 낮 물레만 안고 있어》하시며 물레를 빼앗아 뒤'결에 달아 매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자 할머니도 성을 내시였습니다.

할머니는 할머니 대로 무명 나이를 하여 어려운 살림을 보태시기 위하여 밤낮으로 실을 뽑고 뽑았던 것입니다.

두 분은 한참'동안 말소리가 높았고 성이 가라앉질 않았습니다.

어린 원수님은 뜰악에서 놀다가 얼른 방으로 들어가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담배와 담배'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할아버지, 담배 한대 피우세요》하며 담배를 꾹꾹 담아 드리면서 석냥을 켜서 불까지 부쳐 드렸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성이 풀리시며 담배를 빼억빼억 빠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몇 모금 담배를 맛 있게 피우시다가 어린 손주의 등을 툭툭 치시며 《네가 참 화목동이로다》하며 큰 소리로 웃으셨습니다.

이 바람에 할머니도 함께 웃으셨습니다.

할머니는 귀여운 손주를 바라보시며

《그래, 어서 잠간 자라서 이웃에도 화목동 나라에도 훌륭한 화목동이 되여라》하고 착한 손주를 둔 것을 무척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그 후 원수님은 아버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눈보라 치는 장백산 험한 줄기를 넘나드시며 간악한 일제를 쳐부시며 싸우신 절세의 애국자로 우리 민족의 뛰여난 영웅으로 되셨던 것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

조선 로동당 제4차 대회를 앞두고

—조선 로동당 제 4차 대회가 9월 11일에 열린다…

3월 21일 아침 방송을 통하여 이 기쁜 소식은 온 나라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에 열리였던 우리 당 중앙 위원회 3월 전원 회의에서 결정된 것이지요.

선생님께서 이 소식을 듣고 우리 학원 소년단원들은 모두 흥분하여

《조선 로동당 만세!》, 《김 일성 원수 만세!》를 소리 높이 웨치며 환성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우리 당과 김 일성 원수님이 펼쳐 준 넓고 넓은 배움의 길을 아무 근심 걱정 없이 힘차게 나가는 우리 소년단원들 누구나의 마음이지요.

이 날 우리 원아들은 하늘 보다도 높고 바다 보다도 깊은 로동당과 김 일성 원수님의 품에 안겨 누리는 다함 없는 행복감에 대하여 밤 늦도록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소년단원들입니까!

교과서, 학습장, 연필, 우리들이 그리운게 무엇이 있겠어요.

추울세라 더울세라 철따라 새 옷을 갈아 입히며 당력사 연구실, 소년단실, 실험실, 강당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갖추어진 학교에서 마음껏 공부를 하지요. 그리하여 우리는 초급 중학교와 기술 학교만 졸업해도 어디 가나 척척 기계를 돌리며 일할 수 있고 대학까지 마음껏 다닐 수 있지 않아요.

중앙 야영과 도 야영으로 바다'가에서 호수'가에서 그리고 록음 우거진 산에서 즐거운 야영의 한때를 보내는 봄과 여름, 가을은 또 얼마나 좋아요.

당이 우리 소년단원들에게 안겨 주는 그 많은 행복의 이야기를 어떻게 말로서 다 할 수 있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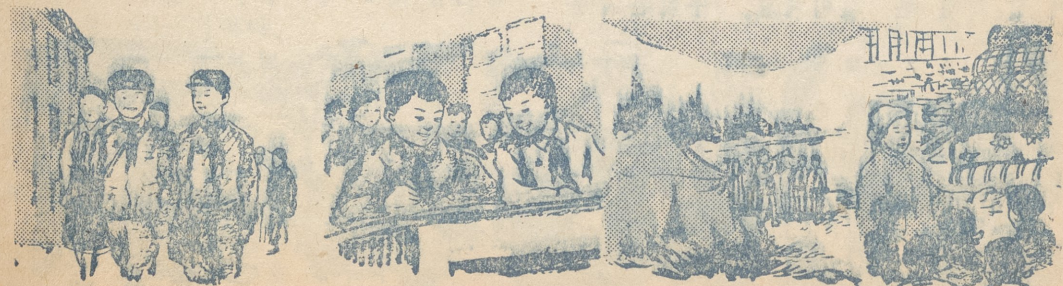
나는 자주 소년단실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밤이 늦어서야 생활실에 돌아와 그날의 일기를 써 놓군 하지요.

그럴 때마다 원아들의 포근한 밤 잠을 지켜 차 던진 이불을 덮어 주며 지나는 교양원 선생님의 가벼운 발걸음 소리를 듣습니다.

《식사를 잘 해야 앓지 않고 얼른 커서 김 일성 원수님의 훌륭한 아들 딸이 돼요》 식사 때마다 원장 선생님, 의무부 원장 선생님과 함께 인민반 아이들의 식사를 돌 보시며 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교양원 선생님이예요.

우리를 누가 부모 없는 고아들이라고 하겠어요.

3차 당 대회가 있은 이후 우리 당과 인민이 거둔 자랑찬 성과를 총화하고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더 행복한 앞날을 안겨줄 웅대한 7개년 계획을 의논하는 4차 당 대회를 맞으며 조국의 앞날을 생각하니 막 새힘이 솟아요.

그때에 가면 우리 나라는 발전된 사회주의 공업의 나라로 될 것이고 방직 공장

에서 필필이 쏟아질 비날론을 비롯한 5억 m의 갖가지 고급 비단 천들과 나일론, 염화 비닐로 만든 일용품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레입니다. 그때면 우리 소년단원들은 어른이 되여 공장과 광산, 그 어디에서나 자동화된 기계로 척척 물건을 만들어 낼 것이지요. 올 해 가을에 열리는 제 4차 당 대회를 앞두고 로동당원 아버지, 어머니, 오빠, 언니들을 비롯하여 우리 나라 전체 근로자들은 금년도 계획을 대회 전에 완수하기 위해 불꽃 튀는 증산 투쟁에 나섰습니다. 그러니 우리 소년단원들인들 어찌 그대로 있을 수 있겠어요. 당 대회를 뜻 깊게 맞자고 의논한 우리 학원 단의 분단 마다에서는 서로 돕고 이끌어 학습과 소년단 생활을 잘하는 붉은 집단을 꾸려 나가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당에 드리는 우리의 선물을 〈모범 분단〉의 영예로!》 우리는 이런 구호를 내세우고 모든 힘을 다하고 있지요.

그래서 누구나 《당을 따르는 마음》이란 수첩을 하나씩 더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모범 분단》의 영예를 지니기 위하여 그날 그날 한 일들을 꼭꼭 적어 나가며 오늘 보다 래일은 더 공부를 잘하고 더 좋은 일을 할 결의를 다지지요. 제 5 분단에 있는 최 선자, 최 후자 쌍둥이 형제는 늘 최우등으로 공부합니다. 이 애들은 이때까지 한자리에 함께 앉아 공부했는데 며칠 전부터 따로 따로 갈라 앉았어요.

《우린 둘 다 최우등생인데 함께 앉아 있을 수 있니 뒤떨어진 아이들의 곁에 가 앉아 도와 주자.》

두 동무는 서로 이렇게 의논했거든요.

김 일성 원수님의 어린 시절을 배우며 본 받고 혁명 전통 학습을 잘하는 것은 당 대회를 맞으며 우리 학원단 소년단원들이 할 제일 큰 일이예요. 우리는 《만경대》를 열심히 읽으며 김 일성 원수님의 어린 시절을 하나 하나 배우며 본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일 빨찌산 아저씨들과 아동단원들에 대한 이야기도 이틀에 한 제목씩 꼭꼭 읽고 있지요. 이때마다 소년단원들은 항일 빨찌산 아저씨들처럼 나라를 사랑하고 원쑤를 미워하는 마음을 키우며 공부와 소년단 생활을 더욱 잘 할 마음을 다시금 다지지요.

《끄마 7개년 계획》 활동은 우리 소년단원들이 힘써야 할 큰 일이지요.

지난 일요일에 1분단 동무들은 농업 협동 조합 아저씨들의 씨 뿌리는 일을 나가 도와 주면서 《당의 기'발 따라》, 《룩대 바다》, 《우리 반 생활》 등의 무용과 춤과 노래로서 아저씨들의 쉼 시간을 즐겁게 했지요.

당 대회가 열리는 그날 물결치는 500만 톤 황금 나락을 선물로 드리기 위해 힘쓰시는 농촌의 아저씨들을 찾아 우리는 자주 조합 밭에 나가지요. 아저씨들이 당 대회에 드리는 귀중한 선물엔 우리 소년단원들의 마음도 담길 것이니 우리가 하는 일은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토끼도 더 많이 기르며 피마주, 해바라기, 수세미 오이도 지난 해보다 몇배나 더 잘 가꿔 많은 수확을 얻기 위해 힘 쓰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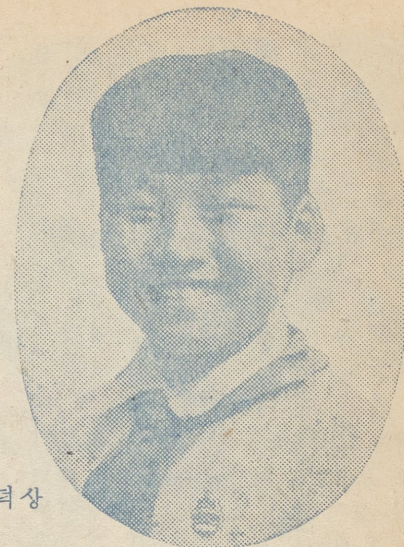
단 위원장인 나는 늘 분단과 반에 내려가 도와 주며 단 위원회를 자주 열어 분단 마다에서 하는 일을 잘 이끌어 4차 당 대회 전으로 어느 분단이나 《모범 분단》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우리 단이 《모범 소년단 단체》 칭호를 받기 위해 힘 쓰겠습니다.

함남 신포시 신포 초등학원

단 위원장 리 률자

도와주며 이끌어 붉은 집단으로

—《모범분단》의 영예를 지닌 평양시 삼마 중학교 제 8 분단 위원장 리 석파 동무에 대한 이야기—

글 김 준 규　　그림 김 덕 상

☆ 분단 위원장의 마음

일요일이였다.

석파는 창학이와 함께 5 반에 내려 가기로했다. 요지음 이틀째나 분단 위원인 최 보학이가 지각을 한 것이다.

《오늘은 꼭 만나야겠구나》 이렇게 마음 먹고 아침 일찍 일어 난 석파는 한참'동안 망서리지 않을 수 없었다.

5 년만에 오신 고모와 온 집안 식구들이 평양 시내 구경을 떠나기 때문이다.

《얘 석파야 너도 갔으면 좋겠구나》 고모의 말씀에 석파는 가고 싶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 (나는 분단 위원장이 아닌가. 그리고 또 《모범 분단》 칭호 쟁취 운동에까지 나서지 않았는가.)

석파의 눈 앞에는 41 명 분단 동무들의 정다운 얼굴이 번갈아 안겨 왔다.

석파는 인민반 3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분단 위원장이다.

4학년 때에 석파네 집은 삼마동에서 등매동으로 이사를 했다. 학교에서 등매동까지는 자그마한 야산을 두 개나 넘는 5 리'길이 잘 되는 거리다.

석파의 할머니는 바로 집 곁에 있는 등매 중학교로 옮겨 오라고 자꾸만 타일렀으나 그는 듣지 않았다.

분단 동무들과 헤여지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때로는 반을 돕고 때로는 뒤떨어진 동무의 공부를 돕느라면 밤'길을 걷는 일이 자주 있었지만 그는 하루의 결석 지각도 없이 이 길을 걸어 학교에 다니고 있다. 석파의 마음을 안 고모는 더는 권하지 않았다.

석파는 창학이와 함께 보학이네 집으로 갔다.

보학이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 평양 기계 공장에 함께 다니시는 것이다.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는 새벽 일찌기 직장에 나가신다.

그래서 보학이는 설겆이를 다하고 유치원에 다니는 동생의 점심 밥까지 싸 보내고야 학교에 나왔다. 보학이가 아침마다 하는 일은 많았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석파는 벌써 찾아 와 보지 못한 것이 미안했다.

다음 날부터 석파는 일찌기 보학이네 집에 들려 그가 하는 일을 도와 주고 함께 학교에 왔다.

분단 위원장인 석파는 날마다 학교에 오면 먼저 동무들의 출석을 알아 보는 것이 버릇으로 되여 있다. 그리고는 시간이 되도록 안 나타나면 그의 집에 달려 가는 것이 일수다.

지난 겨울 어느 날이였다. 그날 석파는 사정이 있어 좀 늦게 학교에 왔다. 와 보니 김 경식의 자리가 비여 있었다. 첫째 시간이 다 끝나도록 그는 나타나지 않았다.

《언제나 제일 먼저 오던 경식이가 웬일일가?》 흉

식 시간이 되자 교실을 나선 석파는 총알처럼 경식이네 집을 향해 달렸다.

《경식아!》

석파가 문을 열고 들어 서니 경식이는 책가방을 멘채 울상을 하고 앉아 있었다.

《너 어떻게 된 일이가?》 경식이는 울먹울먹하며 대답을 못했다.

지난 밤 경식이는 상점에 어머니의 심부름을 갔다 오다가 그만 오른 발목을 시그러뜨렸던 것이다.

석파는 경식이의 책 가방을 빼껴 메고 《가자!》하고 등을 더미려 댔다.

경식이는 말 없이 업혔다. 석파보다 주먹 하나는 더 큰 경식이지만 시간이 되기 전에 가자고 있는 힘을 다해 걸었다.

책 가방이 절렁절렁 흔들리며 경식이의 아픈 발을 때렸다.

《가만 있어 아프겠구나》 석파는 경식이를 내려 놓고 책 가방을 목에 걸었다.

그리고는 뛰다싶이 걸었다. 그러면서 그는 김 룡연 선생의 회상기 《뜨거운 심장들》에서 목에다 쌀 자루 두 개나 건채 부상 당한 왕 정대 아저씨를 끌내 눈'길을 헤치며 밀영지에까지 업고 간 항일 빨찌산 장 복 아저씨를 생각해 봤다.

《하긴 이런 것과는 비기지두 못할 일이지…》

석파는 자기를 그에 비하는 것이 부끄러워 났다.

석파가 경식이를 업고 비지땀을 흘리며 교실에 들어 서자 마자 시작 종이 났다.

분단 동무들은 모두 눈이 둥그래져서 석파에게로 와락 달려 왔다.

동무들은 경식이를 안아다가 자리에 앉혔다. 선생님이 들어 오신 것이다.

경식이는 다른 때보다 더 정신을 모아 공부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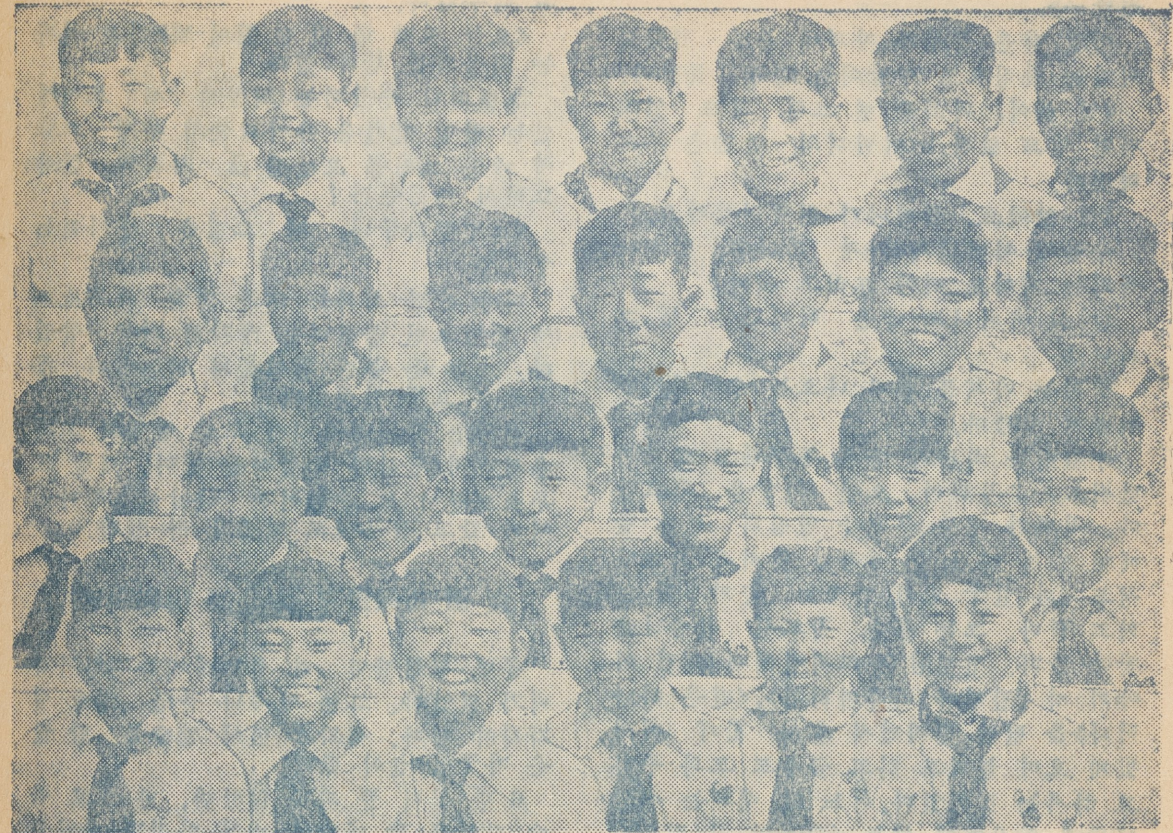
그 시간 공부가 끝난 다

음 석파는 분단 지도원 선생님에게 이 사실을 말씀드리고 곧 분단 위원들과 그를 도울데 대하여 의논하셨다. 그리하여 그는 분단 위원 서 창학, 배 창국 동무들과 함께 진료소에 업고 가서 침을 마쳤다. 석파는 동무들과 함께 보름'동안이나 경식이를 병원에 업고 가서 치료를 받게 해 주었고 학습을 도와 주었다.

이러니 이 분단에 결석생과 락제생이 있을 리 있겠는가!

그리하여 오늘 분단은 한 사람의 결석생도 없이 모두 다 우등, 최우등을 자랑하고 있다.

☆ 누구에게나 좋은 동무

그렇지만 《모범 분단》 칭호 쟁취 운동에 나서기 전의 분단은 어떠했던가, 분단 위원 김 삼도 같은 동무는 분단 사업은 제대로 하지 않고도 위원회 때 좀 비판만 하면 집에 갈 때는 해 보자고 달려 붙군하였

다. 그런가 하면 5반의 장 창명 동무는 이 애 저 애에게 분단 위원장 시비를 하고 다니는 통 애타는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였다. 그리하여 석파는 분단 지도원 선생님을 찾아 간 적도 한 두 번이 아니였다. 그때마다 분단 지도원 선생님은 《남을 지도하자면 이런 일 저런 일을 다 이겨내야 합니다. 분단 위원장은 우선 동무들의 친한 동무가 돼야 합니다.

그러자면 동무들을 잘 알아야 합니다. 성격, 취미, 그의 학업 성적 이런 것두 말이지요…》 그후 석파는 우선 수첩 하나를 만들었다. 그리고는 거기에다 학습에 뒤떨어진 동무들의 이름과 주소를 적어 넣었다. 그는 반장들과 함께 날마다 방과후이면 동무들의 집을 방문하기 시작하였다.

5반의 리 수암이는 늘 지각을 하는가 하면 쩍하면 동무들과 싸움을 잘 했다.

하루는 지각을 했는데 시간 중에 참새 새끼를 가지고 들어와 소동을 일으킨 일도 있었다. 분단 지도원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니 수암이는 후'어머니 손에서 자라는데 아직 집에서도 말썽을 일으킨다는 것이였다. 그래서 후'어머니에게 《어머니》라는 말조차 잘 하지 않는다는 것이였다. 그 날도 집에서 참새 새끼를 잡느라고 유리까지 깼지만 어머니를 속인채 학교로 왔다는 것이였다.

이 사실을 안 석파는 그에게 유리를 해결해 주자고 생각했다. 집에 끼다 남은 유리가 있었던 것이다.

《걱정 말어 우리 집에 유리가 있어》

《정말이니?》

수암이는 대뜸 좋아하는 것이였다.

석파는 그 달음으로 집에 가서 할머니에게 이야기 하고 유리 한장을 가지고 수암이네 집으로 갔다.

석파가 수암이와 함께 유리를 끼우느라고 씩씩거릴 때 어머니가 오셨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수암이하구 뽈을 가지고 놀다가 유리창을 깨뜨렸어요. 용서해 주시겠어요.》

《아니예요. 제가 깼어요, 석파야 넌

정말…》

이런 좋은 동무가 자기네 분단 위원장이라는 자랑으로 수암이는 말을 못했다.

《일 없어, 너희들 땐 그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지.》 어머니의 말씀은 부드러웠다.

《일 없어요. 할머니가 허락하셨어요.》

수암이 어머니가 가져 가라고 했으나 석파는 기여코 끼여 드리고 왔다.

《너희 어머니도 좋은 어머니야 뭘 그러니.》

석파는 자기를 따라 나오는 수암이에게 이렇게 말했다.

수암이는 석파가 좋은 동무라고 생각하면서도 공부하려 오면 얼굴을 찡그렸다. 석파가 산수 문제를 열심히 설명할 때면 밖에 나가 놀 생각만 앞서서 모르면서도 《다 알구 있어》하고는 놀기부터 하려고 했다. 그는 분단 지도원 선생님을 찾아 갔다. 선생님은 도서실에서 그림 이야기 책 《밀림아 이야기하라》, 《길은 하나이다》를 빌려 주시면서 그와 함께 재미있게 보며 놀기도 하고 공부도 도와 주라고 하시는 것이였다. 어느 날 석파는 수암이에게 회상기에 있는 《배움의 첫 걸음》, 《동지들 이 총을 받아 주》를 읽고 이야기도 해주었다.

《오늘 저녁 한 번 더 읽어 봐》하고 석파는 회상기를 빌려 줬다.

그랬더니 수암이는 회상기 책 표지에 있는 항일 빨찌산 아저씨들의 투쟁 모습에 대한 그림을 보면서 그 자리에 앉아 그리지 않겠는가!

《그럴듯하구나, 넌 그림을 좋아하는구나!》

다음 순간 석파는 그를 미술 크루쇼크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퍼뜩 들었다. 그는 곧 분단 위원들과 의논했다. 동무들은 모두 찬성했다.

석파는 아버지에게서 도화 연필과 도화용지까지 얻어다 수암이를 줬다. 미술 크루쇼크원이 된 수암이는 나날이 활기를 띠어 갔고 공부에도 열성을 다 했다.

☆ 열 번째만에 갔다 온 후의 6 반

분단 위원장인 리 석파에게는 한가한 때가 없었다. 그는 언제나 분단 일을 생각해야 했다. 생각은 깊어 갈수록 할 일은 자꾸만 늘어 갔다.

6 반 일이 잘 되지 않았다. 반 별로 산수 경연을 할 때마다 제일 마지막 자리를 찾이 하군 했다.

석파는 여러 번 6 반에 나가 반 모임도 가지고 공부도 도왔으나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석파는 안타까왔다. 아홉 번째만에 나가 제일 뒤 떨어진 산수와 로어 공부를 알아 봤으나 나아진 데가 없었다. 이날 석파는 반과 분단에 대한 생각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겨 률곡동을 지나다가 《모든 사업에서 중심고리를 틀어 쥐고 그에 력량을 집중하자》라는 표어판을 보았다.

한참 서서 읽어 봤으나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다. 언젠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공부할 때 《중심 고리》란 말을 여러 번

쓰던 생각이 났다.

《옳지》하고 생각한 석파는 단숨에 뛰여 집으로 왔다. 석파는 아버지의 책장에서 《공산주의 교양실》이란 책을 꺼냈다.

아버지가 늘 읽던 책이였다. 그는 여러 번 곱씹어 읽어 봤으나 황해 제철소에서 김 일성 원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것 밖에 알 수 없었다.

석파는 무슨 중요한 뜻이 담겨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당장 알고 싶었다. 그는 저녁에 직장에서 돌아 온 아버지에게 물어서 그 뜻을 똑똑히 알았다.

《그렇구나 6반에서 제일 먼저 힘을 돌려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자. 그래서 반 동무들이 모두 그 일을 잘 하도록 힘 쓰게 하면 다른 것도 다 잘 되겠구나, 그러면 분단 일도 척척 잘 돼 나가겠구나.》

석파는 마치 어른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껑충껑충 뛰며 좋아했다. 그는 열 번째만에는 분단 위원들을 다 데리고 6 반에 내려 가서 반 동무들을 하나하나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6반 일이 잘 되지 않는 것은 우선 반장이 모범이 되지 못할 뿐더러 전체 반원들이 한 마음으로 뭉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분단 위원들도 모두 그렇게 생각했다.

공부가 뒤떨어진 김 호를 도와 주지는 않고 반장 자신이 뒤에서 이러쿵 저러쿵 말만했다. 그리고는 반에서 결정한 문제들을 그대로 집행하지 않아도 그만이고 규률이 없었다.

학교에 오갈 때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인사를 꼭꼭하자고 결정했는데 그러기는 고사하고 동무들 간에도 서로 인사를 잘 하지 않는 것이였다.

석파는 반장인 명삼이부터 도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학교에 올 때마다 명삼이네 집에 들렸다.

《어머니! 학교에 다녀 오겠습니다.》

집을 나설 때면 석파는 명삼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인사를 했다.

첫 날에는 머뭇머뭇 거리다가 할 수 없이 《어머니…》하고는 부끄러워 냅다 뛰더니 며칠 되지 않아 그는 석파의 모범을 따랐다.

김 호는 직장에 다니는 두 누나와 함께 살고 있다. 석파는 김 호네의 쌀 탈 날자까지 적어 뒀다가 잊지 않고 명삼이와 함께 타다 주었다. 그리고 바께쯔에 물을 길으면서까지 암산 문제를 내여 대답하게 했다.

반장이 이러니 반 동무들도 모두 김 호를 도와 나섰다. 이러는 동안에 반 동무들은 점점 한 마음이 되여 무슨 일이나 척척 잘 되였다. 명삼이는 석파처럼 반 동무들을 도와야겠다고 생각하고 김 호를 애써 도왔다.

석파가 분단 위원들과 함께 열 번째 만에 갔다 온 후의 6반은 나날이 달라졌다.

1 학기 총화 때의 산수 성적은 김 호만이 4 점이고 모두다 5 점이였다.

김 호는 처음 받아 보는 4 점이여서 벌씬벌씬 웃으며 좋아했다.

제일 뒤떨어졌던 6반이 앞서게 되자 다른 반들에서도 지지 않겠다고 저마다 애썼다.

석파는 지금 하나의 마음으로 묶어진 분단의 맨 앞에서 《모범 분단》 기'발을 휘날리며 앞으로 앞으로 나아 가고 있다.

(19), 문섭이는 더는 그냥 있을 수가 없었다. 굶주린 인민들과 아이들을 위하여 노루를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앞섰다. 그는 보초 위치를 떠나 쏜살 같이 노루에게로 달려 갔다. 그가 노루를 덮쳤다. 그만 놀라난 노루는 껑충 뛰며 문섭의 손에서 빠져 달아났다.

(20)문섭이는 노루가 잡힐듯 잡힐듯 해서 그냥 노루를 뒤쫓았다. 노루는 죽을 힘을 다하여 이리 저리 내뺐였다. 이를 뒤 쫓는 문섭이는 보초 구역에서 상당히 먼 거리까지 왔다.

(21)한편 문섭이의 보초 근무를 알아 보기 위해 찾아 왔던 분대장 춘삼이는 그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보초가 없어졌던 것이다.그는 급히 사방을 살펴 보았다. 그러나 문섭이는 보이지 않았다.

(22)춘삼이는 급히 붉은 기, 흰기로 비상 신호를 보내였다. 그러자 여기 저기에서 아동단원들이 모여 왔다. 춘삼이는 문섭이가 없어진 사실을 알리면서 그를 찾을 데 대한 것을 말하고 다른 아동단원을 문섭이 대신 보초를 세웠다.

(23)춘삼이를 비롯한 아동단원들이 떨쳐 나서 문섭이를 찾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자꾸만 불길한 생각이 들어 초조히 찾아 돌아 갔다. 그러나 문섭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24)노루를 뒤 쫓던 문섭이는 문득 자기가 보초 임무를 잊어 먹고 외딴 데 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예까지 따라 왔던 노루를 그냥 내 버려 두기는 아수했다.

(25)문섭이는 빨리 노루를 잡아 가지고 돌아가리라 마음 먹고 계속 노루를 뒤 따랐다. 그는 끝내 노루의 뒤'다리를 잡고 늘어졌다.

(26)노루를 잡은 문섭이는 기뻤다. 그는 살찐 노루를 가까스로 둘러 메고 급히 돌아 오고 있었다. 그의 머리 속에는 인민들과 아이들이 좋아 날뛰는 모습이 선히 떠 올랐다.

(27)그가 어느 숲 속을 걸어 오고 있을 때였다. 한 수풀에는 두 놈의 왜놈이 엎드려 문섭이를 노려 보고 있었다. 적 《토벌대》의 선발대 놈들이였다.

(다음 호에 계속)

당의 품속에서 피여나는 붉은 꽃송이

— 황해 남도 해주시 유자녀 학원 제 4 분단 주 상원 동무의 이야기 —

그림 최 순천

☆ 생일 날

기상 나팔 소리가 고요한 아침 공기를 깨뜨리며 사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벌떡 자리에서 일어 난 상원이는 그만 어안이 벙벙해 졌습니다. 일어 나 보니 벼개 밑에 알뜰하게 빨아 다림질까지 한 옷과 내의가 있었고 그 우에는 새 붉은 넥타이가 놓여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누가 이랬을가?! 아니 지난 밤 내가 남의 자리에와 누운 것이 아닐가.)

동무들은 모두가 아침 체조하려 밖으로 나가고 있었으나 상원이만은 어안이 벙벙해서 아직 웃옷 조차 입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보모 선생님이 들어 오셨습니다.

《네가 일어나기 전에 온다는 것이 그만 늦었구나》. 하시더니 알락달락한 새 양말 한켤레를 내놓으시는것이 아니겠어요.

그러자 더욱 어안이 벙벙해진 상원이는 《어머니, 오늘 무슨 일이 있어요》 하며 어머니 곁으로 다가 갔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벙글벙글 웃으시며 《오늘은 네게 기쁜 날이란다. 어서 식당으로 오너라》 하며 상원이의 등을 가볍게 두드릴 뿐이였습니다.

《내게 무슨 기쁜 날이예요》하며 상원이는 영문을 알 수 없어 다시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몰랐는가 하는 듯이 《네 생일이 아니냐》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상원이는 코'등이 시큰해지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이였습니다.

식당에는 보모 선생님들이 정성껏 만든 맛 있는 가지가지의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옛날 부자집 아들 생일 날 같구나》 하며 보모 선생님과 동무들은 더금 더금 더 권하는 것이였습니다.

저녁에 분단에서는 상원이의 생일을 축하

하여 오락회와 재미 있는 놀음들을 가졌습니다. 이날 밤 자리에 누운 상원이의 두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자꾸만 흘러 베개 깃을 적시였습니다.

미국놈들에게 억울하게 학살된 아버지, 어머니의 생각과 함께 자기를 어버이 같은 사랑의 손'길로 따뜻이 보살펴 주시는 당과 김 일성 원수님에 대한 한없는 고마움으로 하여서였지요.

(정말 내가 만약 남반부에 있다면 어떻게 되였을가!)

그렇습니다.

소년단원 동무들! 동무들은 오늘 이처럼 원수님의 품 속에서 행복하게 배우며 자라는 상원이에게 다음과 같은 잊을 수 없는 몸서리치는 지난 날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 죽엄의 창고에서

1950년 10월, 지난 조국 해방 전쟁시기 우리 인민 군대가 일시적으로 후퇴하게 되였을 때 일입니다. 황해 남도 신천군에도 미국 승냥이 놈들이 기여들었습니다.

승냥이 놈들은 로동당원들과 애국적 인민들을 《빨갱이》라고 닥치는대로 끌어다가 귀를 베고 이'발을 뽑고 쇠줄로 코를 꿰 가지고 돌아다니다가 배를 갈라 죽이고 총으로 쏘아 죽이군 했습니다.

미국놈들은 상원이의 아버지도 이렇게 학살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도 시원치 않아 이 미국 승냥이 놈들은 가족들과 어린 아이들마저 끌어다가 밤 나무'골에 있는 두 개의 화약 창고에 가두었습니다. 놈들은 어머니를 찾으며 아우성치는 어린 것들을 따로 떼서 두 개의 창고에 갈라 가두어 넣었습니다. 이리하여 상원이도 (그때 상원이는 다섯살이였다) 어머니와 떨어져 다른 화약 창고에 갇히우게 되였습니다. 어머니들과 어린이들의 아우성 소리는 애처롭게 밤 나무'골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목 마르고 배 고픈 아이들은 자기 오줌을 고무신에 받아 마시였습니다. 배 고프고 울다 기진해진 아이들은 인제는 더는 어머니를 부를 힘조차 없었습니다.

벽을 긁고 후비여 아이들의 손톱은 달아 빠져서 피가 철철 흘렀습니다. 구석구석 마다에

죽어 가는 아이들이 늘어갔습니다.

상원이가 화약 창고에 갇힌지 일주일이 되는 날이였습니다. 아이들은 이제는 엄마를 찾을 기력도 없었습니다. 말라드는 입술을 쥐어뜯으며 《물! 물!》 그저 물만 찾았습니다.

이때 한 승냥이 놈이 들어 오더니 《요 빨갱이 종자들아 예따 실컨 먹어라》 하며 석유 통에 든《물》을 뿌려 주었습니다. 목 마른 아이들은 고무신으로 퍼선 꿀꺽꿀꺽 들이켰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은 가슴을 후벼 뜯으며 돌아갔습니다. 그것은 물이 아니라 휘발유였던 것입니다.

이 간악한 승냥이 놈들은 이 광경을 보며 껄껄 웃어 대는 것이였습니다.

이때 또 다른 놈이 휘발유 통 하나를 가지고 들어와 아이들의 머리 우에 막 사정 없이 뿌렸습니다. 아이들은 그것이 물인가고 또 덤벼 들었습니다.

이때였습니다.

권총을 찬 미국 놈 한 놈이 나타나더니 휘'파람을 불자 앞잡이 놈이 석냥을 그어 댔습니다.

삼단 같은 불'길이 아이들을 삼켰습니다. 불'길 속에서는 미국 놈이 던진 수류탄이 쾅! 쾅! 요란스럽게 터졌습니다. 상원이는 창고 한편 구석에 가 박힌채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웃 창고가 삼'단 같은 불'길 속에 휩싸이고 있을 때 어머니들이 갇히운 아래'창고에서도 불'길이 솟았습니다.

상원이가 눈을 떴을 땐 아이들은 거의 다 죽고 아직도 어떤 아이들의 몸에선 불'길이 일고 있었습니다. 상원이는 그저 정신 없이 연기 속을 뚫고 훤하게 열려진 문앞까지 벌렁벌렁 기여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선듯 손에 지피는 대로 눈을 핥아 먹다가 그만 그 자리에 다시 쓰러졌습니다.

상원이가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을 때는 어느 나즈막한 어떤 할머니 (김 심금 할머니는 지금 61세 입니다)의 집에서 할머니의 따뜻한 간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가 창고 문'가에 쓰러진 것을 이 할머니가 가엽게 여기고 업어 왔던 것입니다.

그 후 상원이는 당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 이곳 유자녀 학원에 와

행복하게 공부하게 되였던 것입니다.

☆ 원쑤를 갚을 때까지

상원이는 항상 행복할수록 원쑤를 잊지 않고 학습과 소년단 사업에서도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그의《붉은 마음》수첩에는 항일 빨찌산 투사들과 아동단원들의 모범을 배우며 본받아 자기가 한 일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상원이는 언제나 동무들에게 두 발 가진 미국 승냥이 놈들을 우리 조국 땅에서 몰아 내기 위해 김 일성 원수님의 나어린 붉은 전사가 되여야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작문, 동요를 지어 동무들에게 읽어도 주었고 그림들을 그려 벽보에 부치기도 하였습니다.

1959년 5월 학원을 방문하신 김 일성 원수님께서는 아버지, 어머니의 원쑤를 갚는 마음으로 공부를 더 잘하며 학원을 문화 위생적으로 꾸릴 것을 말씀하시였습니다.

원수님의 말씀을 훌륭히 지키는 것만이 곧 아버지 어머니의 원쑤를 갚는 길이라는 것을 잘 아는 그는 공부도 열심히 하는 한편 동무들의 앞장에 서서 마침내는 교실을 학원에서 제일가는 모범 교실로 꾸며 놓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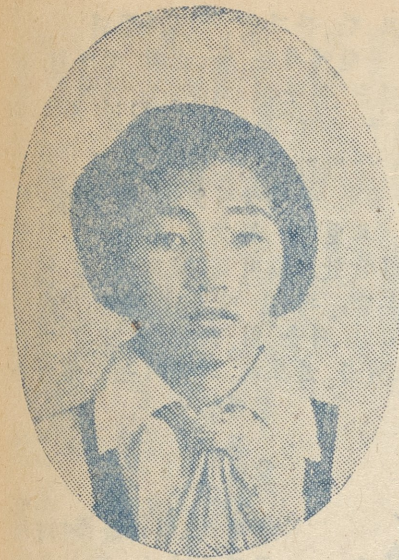
지난 겨울에 있은 이야기입니다. 눈 나린 날 아침이면 원수님의 동상 주위는 누가 한일인지 항상 깨끗하게 쓸어져 있었습니다. 눈 나린 아침이면 다른 학교의 많은 동무들도 일찍 비를 들고 뛰여 왔지만 그때마다《누가 했을가?》하며 아이들은 되돌아 서군 하였습니다. 며칠 후에야 이런 아름다운 일을 상원이가 했다는 것을 알게 되였습니다.

《모범 분단》칭호 쟁취 운동에 궐기하던 날 상원이는 뒤떨어진 종환이를 맡아 나섰습니다. 그는 숙제도 함께 풀었고 실험실과 실습공장에서 배운 것을 익혀 가면서 동무를 도와 종환이를 우등생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동무들에게 신망 높은 상원이는 학원 단 위원으로 선거되였고 4년간 계속 최우등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원이의 가슴에는 소년단 휘장과 함께 민청 중앙 위원회로부터 받은 영예의《모범 소년단원》휘장이 나란히 빛나고 있습니다.

동무들처럼 상원의 래일의 희망도 끝 없이 큽니다. 그는 작가가 될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행복한 사회주의 조국에서 태산 보다 높고 바다 보다 깊은 당의 배려 속에 행복하게 자라는 그가 원한다면 작가로도, 기사로도 그 무엇인들 못되겠습니까!

이처럼 행복한 꿈을 안은 상원이는 오늘도 원수님을 어버이처럼 모신 행복의 집—학원에서 마음껏 배우며 즐기고 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모범 반이다

—함남도 함흥시 룡성 구역 구룡 중학교 단 15분단 리 명숙 동무에 대한 이야기—

그림 맹동원

지난 여름 어느 날이였다. 분단에 장 혜숙이란 애가 새로 전학해 왔다.

《혜숙이가 1반에 속하기로 됐어요.》

선생님의 이 말씀에 1반 반장인 명숙이는《야!》하고 손'벽을 쳤다.

쉴 시간이 되자 명숙이는 인차 혜숙이에게 가서《난 리 명숙이라고 해》하면서 어른들처럼 조그만 손을 잡아 흔들었다.

《로어는 어디까지 배웠니?》

명숙이는 과목마다 차근차근 알아 봤다.

그는 혜숙이가 공부를 잘 하리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느 날 로어 시간이였다. 선생님의 지명을 받은 혜숙이가 일어섰다. 명숙이는 그가 줄줄 내려 읽는 목소리를 빨리 듣고 싶었다.

이윽고 혜숙이는 가느다란 목소리로 겨우 떠듬떠듬 읽기 시작했다.

명숙이는 안타까왔다. 다른 애들처럼 멋있게 읽었으면 얼마나 좋으랴 싶었다.

《우등생도 못되는구나》명숙이는 제일처럼 부끄러웠다.

혜숙이가 오면서부터 공부엔 1반이 제일 뒤떨어졌다. 그래서 처음에 어떤 동무들은 혜숙이를 달가와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명숙이는 혜숙이를 꼭 우등의 성적으로 만들겠다고 마음 먹었다.

알고 보니 아버지 어머니가 없는 혜숙이는 삼촌네 집에 와서 공부하고 있었다.

혜숙이의 작은 어머니는 늘 시름시름 앓으셨다. 그래서 혜숙이가 밥을 짓는 때가 많았다. 명숙이는 학교에서 돌아 와서 혜숙이와 함께 공부하다가도 저녁 때가 되면 그를 도와 물도 긷고 석탄도 이겼다. 그리고 일요일에는 반 동무들을 데리고 와서 석탄을 이기는 데 쓸 진흙을 파다 날라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였다. 혜숙이가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점심 시간에 명숙이가 가 보니 그는 집에도 없었다. 퇴조에 있는 할머니네 집에 갔다는 것이였다.

《할머니가 편치 않으시다는 편지를 받고 그 길로 갔으니까 오늘 밤 차엔 올게다.》명숙이가 안타까와 하는 것을 보고 그의 작은 어머니는 걱정스러이 말했다.

혜숙이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원쑤놈들의 손에 돌아 가신 후 두살 때부터 열 두살까지 할머니의 귀여움을 받으며 자랐다. 그래서 혜숙이는 늘 할머니 있는 데 가서 공부하겠다고 했다. 할머니는 작은 삼촌과 함께 퇴조 수산 사업소에서 일하신다. 작은 어머니에게서 이것을 안 명숙이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혜숙이의 책상에 가 보니 책은 그대로 있었다.

그제야 안심한 명숙이는 그의 작은 어머니에게 말하고 혜숙이의 책 가방을 메고 동무들에게로 뛰여 갔다.

혜숙이는 없었지만 그를 도와 줄 데 대한 반 모임을 가졌다. 반 동무들은 모두 혜숙이의 학습장을 나눠 가졌다. 밤이 되자 명숙이는 혜숙이를 마중하러 빼스 정류소로 나갔다.

흥남에서 나오는 빼스가 멎을 때마다 뛰여 가 봤으나 혜숙이는 내리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 빼스에도 오지 않았다.

다음 날도 두번씩이나 있는 낮차에도 오지 않았다. 《그애가 아주 안 오면 어절가?》 공부에 애를 먹일 때는 달가와 하지 않았지만 막상 그가 안 오니 모두 섭섭한 얼굴이였다.

반 동무들은 그날 밤에도 빼스 정류소로 나갔다.

드디여 혜숙이가 내렸다. 동무들은 모두 반색을 하며 달려 갔다.

《앓지 않았니?》

《할머니는 어떠시니?》

뜻하지 않은 일을 당한 혜숙이는 그저 동무들이 너무 고마워 눈'시울이 뜨거워져 아무 말도 못했다.

그 이튿날 혜숙이는 전에처럼 명숙이와 함께 학교에 왔다.

《이건 산수 학습장이야》

《글씨를 곱게 못썼어, 로어 학습장이야》 혜숙이가 자리에 앉자마자 반 동무들은 저마다 정리한 학습장을 척척 내 밀었다. 혜숙이는 어쩔 바를 몰라했다. 이처럼 정다운 동무들의 곁을 떠나려고 한 자기가 부끄러웠다.

며칠 후 분단에서는 황 순희 선생의 회상기 《리 화순 동무의 최후》를 가지고 혁명 전통 연구 발표 모임을 가졌다.

동무들은 저마다 뛰여 나가 느낀 점을 말했다. 아동단 분단장이였던 리 화순 언니가 일본 《토벌대》 놈들이 함부로 총질하는 아슬아슬한 고비를 넘고 어린 애를 구원하는 모습, 피 한 방울이 남을 때까지 원쑤와 맞받아 싸운 리 화순 언니의 마지막 웨침 소리를 들으며 혜숙이는 어깨를 들먹거렸다.

그는 분단 동무들 앞에 나섰다.

《난 오늘까지 소년단원의 영예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전쟁 때 로동당 세포 위원장이였던 혜숙이의 아버지는 후퇴하다가 그만 원쑤놈들에게 붙들리여 모진 고문 끝에 생매장을 당하였던 것이다.

그때 두살이였던 혜숙이는 엄마의 품에서 젖을 빨고 있었다.

원쑤놈들은 그의 아버지를 생매장하고도 씨원치 않아 어머니마저 끌고 갔다. 혜숙이는 할머니의 품에 안겨 엄마를 부르며 울었다. 녀맹 위원장이던 어머니는 다시 돌아 오지 못했다. 놈들이 총살한 것이다.

이때부터 혜숙이는 할머니를 엄마인 줄 알고 할머니를 엄마라고 부르며 자랐다.

《그런데 난…》 혜숙이는 그만 더 말을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자 분단 동무들도 모두 울었다.

이때 명숙이가 일어서며 말했다. 《혜숙이 아버지 어머니의 원쑤는 우리의 원쑤입니다. 우리들도 함께 이 원쑤를 갚아 줍시다.》

그후 명숙이의 도움으로 혜숙이의 공부 성적은 나날이 달라졌다. 방금 1학기 산수 시험이 끝났을 때였다.

명숙이가 혜숙이네 집에 찾아 가니 그는 또 우는 것이였다. 《넌 참 눈물이 헤프구나 또 할머니 생각을 하니?》 하고 명숙이가 물었다.

《아니야, 나 때문에 우리 반이 최우등이 못 됐어…》

이번 중간 시험에서 혜숙이만 4점이고 다른 동무들은 다 5점이였던 것이다.

《걱정 말어, 앞으로 노력하면 돼》 명숙이는 혜숙이에게 타이르듯 말했다.

그후 명숙이는 분단 위원으로 됐다.

1반은 분단에서 잘 되는 모범 반이였다.

이제부터 명숙이는 분단 위원이면서 1반 반장이다.

어느 날 분단 총회에서는 《모범 분단》 칭호를 쟁취하기 위하여 그 동안 분단과 반마다에서 한 일들을 평가하고 이제 할 일을 의논했다. 4반이 제일 뒤 떨어져 있었다.

명숙이는 이때 선생님이 늘 이야기하던 길 확실 언니를 생각했다.

《동무들 나는 4반으로 가겠습니다.》

명숙이는 힘있게 말했다.

1반에는 이제는 명숙이가 없어도 일이 잘 돼 나가게 된 것이다.

《참 좋은 생각이예요.》 분단 지도원 선생님이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시자 동무들은 모두 요란한 박수를 쳤다.

명숙이는 4반 반원이 되였다. 집은 모두 학교와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일 없었다.

1반 반장은 리 무숙이가 되였다.

명숙이는 4반 동무들과 지내는 동안 반 일이 잘되지 않는 것은 반장인 신 란숙이가 아직 반 사업을 잘할 줄 모르는 데 있다는 것을 알았다. 란숙이는 반 동무들에게 모범을 보여 줄 대신에 시키기만했다.

란숙이의 이 잘못을 고쳐 줘야 했다.

명숙이는 제가 먼저 무슨 일에서든지 반 동무들의 모범이 되여 반장인 란숙이가 깨닫도록 하자고 생각했다.

한 번은 분단 총회의 결정으로 인민반 어린 동생들의 반에 걸레를 만들어 가기로 되였다. 명숙이는 못 가져 오는 아이들이 있을가봐 두 개나 만들어 가지고 오다가 란숙이네 집에 들렸다. 란숙이는 걸레를 만들지 않았었다.

《이걸 받아, 네꺼야 내껀 이거구》

명숙이는 란숙이에게 하나 줬다. 그런 다음에 반 동무들이 만들어 왔는가를 알아보게 했다. 숙제가 있을 때에도 이렇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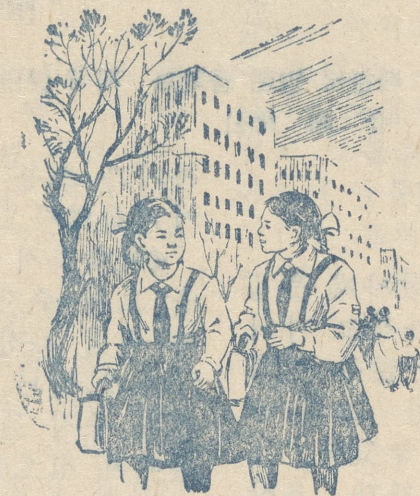
한 번은 종선이가 비행사인 자기네 아저씨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 신이 나서 하는데 란숙이가 《아니다 아니다》 하면서 손을 막 내 흔들며 말을 못하게 했다.

명숙이는 란숙이에게 그러지 말라는 눈짓을 하고 《말하던 걸 다 말해라》 하고 종선이의 말을 그냥 듣게 했다.

헤여질 때 명숙이는 《반 동무들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너만 늘 길게 말하고 다른 아이들의 말을 막으면 그 애들이 좋아 하니》 하고 타일렀다.

이래서 란숙이는 점점 반동무들의 모범이 되였고 마침내 4반은 다른 반에 지지 않는 훌륭한 반이 되였다.

지난 겨울 방학이 끝나자 명숙이는 또 제일 뒤 떨어진 2반으로 내려 갔다.

이렇게 되여 동무들로부터 《꼬마 길 확실》이라고 불리우는 명숙이는 3월 5일에 단 기'발 앞에서 사진 촬영의 표창을 받았다.

—황남 배천군 방현 중학교 제 2 분단에서—

글 최 죽산　　　그림 안 창수

열성자 모임

공부 시간이였다.

조용하던 교실 안은 갑자기 웃음보가 터졌다. 잉크를 가지고 다니지 않는 용삼이가 앞에 앉는 원배의 잉크를 찍다가 그만 그의 학습장에 잉크를 쏟아 놓았다. 그 바람에 부아가 난 원배가 용삼이의 낯에 잉크를 뿌렸기 때문이였다.

이럴 때마다 애타게 여긴 것은 분단 위원인 문 순덕이였다. 그는 분단에서 원배를 돕겠다고 자진해 맡아 나섰기 때문이다.

《원배야! 시간 중에 그런 짓을 하면 동무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니》라고 하는 순덕의 말에 원배는 《너더러 그런 일에 참견하라니》 하며 룩 쏴부치고는 책 밖으로 나갔다. 분을 참으며 돌아선 순덕이는

자기가 그를 맡겠다고 나선 것이 어리석었다고까지 생각이 들었다.

《이때까지 원배와 신호의 잘못을 고쳐 주지 못한 것은 우리 분단 위원 자신들이 그애들을 〈말썽꾸러기〉이니 〈남자애〉들이니 하며 돌봐 주지 못한 데 있습니다. 내가 원배와 신호를 돕겠습니다》.

그날 분단 위원회에서 나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던가!

집으로 돌아 온 순덕이는 《붉은 마음 수첩》에 또박또박 자기의 생각을 적어 갔다. 그리고 아버지의 신문철에서 두 번씩이나 뒤 떨어진 작업반으로 내려갔다는 로력 영웅 길 확실 언니에 대하여 쓴 글을 다시 읽었다.

전기종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 온 순덕이는 그 언젠가 아버지에게 들었던 생각이 나서 문득 이런 말을 들었다. 《아버지 원배와 신호가 그때 조합 아저씨들에게서 칭찬 받은 일은 무슨 일 때문이예요》 신문을 읽다 말고 아버지는 원배와 신호가 자기들의 손으로 끊어진 전화선을 이은 일을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그런 훌륭한 일을 하니 공부도 잘 하겠구나고 묻기까지 하셨다.

다음 날 순덕이는 아버지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분단 동무들 앞에서 했다. 그러자 원배는 입을 한 번 삐죽해 보이고는 밖으로 나간 후에 다시 들어 오지 않았다.

방과 후에 순덕이는 원배네 집으로 찾아 갔다.

《저것 보아라, 책보를 저렇게 내동댕이 치고는 밤낮 뭘 만든다고 일'감을 들고 나가면 저녁 늦어서야 돌아 온단다》하며 어머니는 공부하지 않는 아들을 못내 근심하시는 것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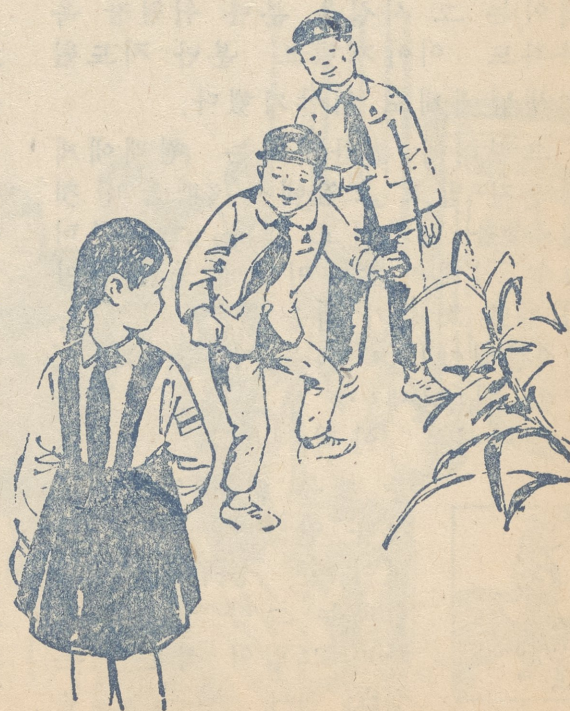
《요새는 그 무슨 전기종인지 뭔지를 만드는 데 코일루가 없다나, 그래 애타 돌아가더니 어떻게나 됐는지 모르겠다.》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순덕이는 《옳지 원배에게 코일루를 해결해 주자》고 생각했다. 순덕이는 그 길로 5리나 되는 고모네 집으로 달려 갔다. 그는 언젠가 고모네 집에 쓰다 남은 코일루를 보아 둔 기억이 났던 것이다. 그가 마을 어구를 나설 때였다.

뜻하지 않게 원배와 신호와 마주치게 되였다. 그들은 순덕이의 앞을 가로 막아 섰다. 《계집애가 뭘 어쩌자구 사람을 올려 추며 까불대는거야》 원배는 주먹을 순덕의 코 앞까지 들이댔다.

《분단에서 네가 우릴 맡았다면서》 신호가 호주머니에 넣었던 손을 뽑으며 비양'조로 말하였다.

밸이 났지만 순덕이는 참으며 《너희들을 돕자는데 무엇이 나쁘니?》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원배는 《돕긴 뭘 도와, 시시하다. 빨리 가》하며 발'길로 순덕이의 발 뒤축을 차며 잔등을 밀어치고는 달아나 버렸다.

《아니 애들이…》

순덕이는 성이 나서 그길로 되돌아섰다. (내가 뭐이 안타까와 그런 애들에게 매까지 맞으면서 돕겠니) 여기까지 생각한 그는 걸음을 멈췄다. 그러나 다음 순간 (아니다. 그애들이 그럴수록 더욱 친절히 그들을 도와 주어야 한다. 이런때 아동 단원들 같으면) 이렇게 생각을 고쳐 먹은 그는 다시 되돌아 섰다. 그는 단숨에 고모네 집까

지 가서 코일루을 얻어가지고 그길로 원배네 집으로 찾아 갔다.

《원배 동무!》. 불러도 대답이 없었다. 그러자 안에서

《얘 원배야, 동무가 부르는데 대답을 해야 할게 아니냐?》

어머님의 꾸짖는 말소리가 들렸다. 그래도 원배는 나오지 않았다.

이날 순덕이는 어머니에게 코일루를 맡기고 돌아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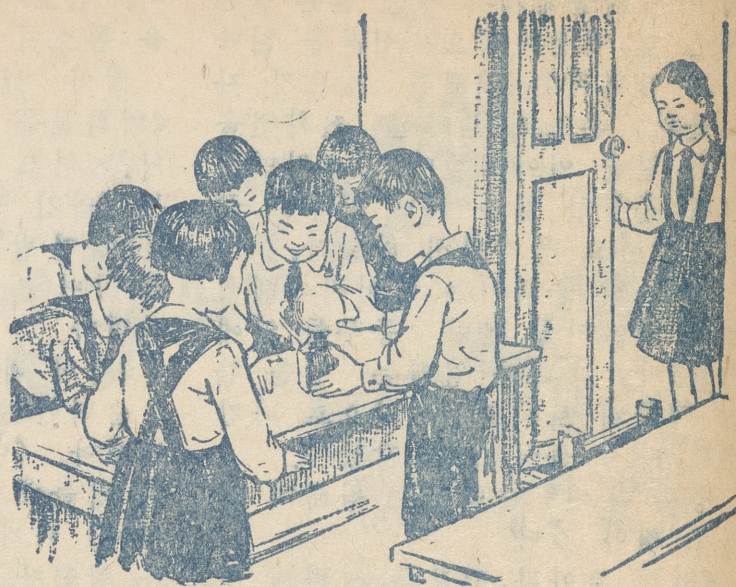
다음 날부터 원배는 순덕이를 보자 머리만 숙이고 말 없이 지나가군 했다.

순덕이는 원배가 마음 지핀 곳이 있어 한다는 것을 느꼈다. 순덕이는 그 사실을 분단 위원장 옥자와도 이야기했고 분단 지도원 선생님에게도 이야기했다.

그리하여 분단에서는 원배에게 회상기 발표 모임에서 《배움의 첫 걸음》을 맡기자고 했다. 그 후부터 그는 원배의 호주머니에 둥글게 말아 넣은 회상기 책을 볼 수 있었다.

《원배야! 그 책을 다 봤니》

《보긴 언제…》

순덕이는 아침 원배가 자기가 준 책을 읽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후 순덕이는 동무들에게서 원배는 그림 책을 좋아하며 그림이 적은 책은 선듯 손에 들지 않는 성미라는 것을 들었다. 그는 다시 《배움의 첫 걸음》을 그림 책으로 된 것을 가져다 주었다.

아침 일찍 학교로 나온 순덕이는 동무들 속에서 뭐라고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 원배를 보았다.

원배의 한 손에는 전기 종이 쥐여 있었다. 아이들은 《야 멋있구나!》 하며 스위치를 넣었다.

《찌릉찌릉 찌르릉》 전기종 소리는 교실 안에 요란히 울렸다. 누군가가 원배를 물리 크루쇼크 책임자로 시키자고 했다. 그바람에 원배는 입이 헤벌떡해지며 좋아하는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옳지 그 애에게…》

순덕이는 분단 위원장과 의논하고 선생님을 찾아 가서 그를 물리 크루쇼크 책임자를 시키자고 했다.

그후 물리 크루쇼크 책임자가

된 원배는 학습과 생활에서 날마다 달라져 갔다.

그러나 원배와 신호의 대수, 로어 과목은 여전히 락후하였다.

순덕이는 본래 분단에서 재미있고 흥미 있는 유희와 놀음으로 힘든 과목에 취미를 부치도록 하자는 위임을 맡고 있었다. 그는 생각 끝에 육면체 주사위(오락 기구)에 수학 공식과 로어 자모들을 써 넣고 그를 굴려 가며 노는 놀음을 생각해 냈다.

선생님은 순덕이의 훌륭한 생각에 감탄하였다. 원배의 집에서 복습을 마친 그는 육면체 주사위와 판을 내놓으며 노는 방법을 알려주고 놀기도 했다.

신호와 원배는 《육면체 주사위 굴리기 놀음》에서 지지 않으려 했고 매일 휴식 시간마다 단어와 공식을 외웠다.

☆ 우등, 최우등

원배와 신호는 매일 저녁 반 학습에 빠지지 않았다. 어느날 숙제를 함께 풀어 가던 순덕이는 원배의 대수 학습장에 작난으로 그림도 그려져 있고 군데군데 흰 백지장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교과서를 되는 대로 굴려 책뚜껑과 책장들이 여러문장씩 떨어져 나간 것이였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 온 순덕이는 새 학습장에 또박또박 원배의 대수 교과서가 떨어져 나간 부분을 베꼈다. 그리고는 원배 모르게 가져온 대수 책에 풀로 잘 부치고 신문지로 표지까지 해 씌웠다.

이튿날 아침 원배는 다음 시간 준비로 대수 교과서와 학습장을 꺼내다 말고 표지를 신문지로 싼 대수 교과서의 글씨를 보고서야 그것이 누가 한 것인가를 알았다.

그로부터 얼마 후 대수 시간이였다. 원배는 힘든 문제를 인수 분해 공식을 리용해 가며 훌륭히 풀었다. 《오늘 원배는 어려운 문제를 아주 훌륭히 풀었습니다.》 하며 선생님은 기뻐하시며 칭찬하시였다.

분단 동무들도 모두 기뻐했다.

업간 체조를 마치고 교실로 들어 온 아이들은 와하고 분단 벽보판 앞으로 밀려 갔다. 거기엔 대수 시간에 훌륭히 문제를 푼 원배를

칭찬하는 글이 손가락만큼 굵은 붉은 테두리 안에 씌여져 있었다. 그 옆엔 대수 선생님께서도 매우 기뻤다던 이야기와 순덕이의 도움으로 뒤떨어진 수학 과목을 딸아서게 되기까지의 원배의 이야기도 나붙어 있었다.

벽보를 바라보는 동무들 속에 끼운 순덕이도 기뻤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아직 원배를 훌륭히 도와 주었다고는 생각지 않았다. 그 후에도 그는 꾸준히 신호와 원배의 학습을 도왔다. 어느날 물리 시험실에 들어 온 순덕이는 원배와 신호가 알콜 람프에 가는 유리관을 휘는 것을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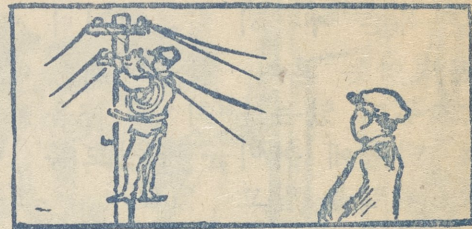
그들이 책에서 배운 원리를 리용하여 수평면과 수직면을 재이는 수준기를 만들자고 달라 붙은 것이였다.

순덕이는 그들을 힘껏 도왔다. 그리하여 마침내는 훌륭한 수준기가 만들어졌다. 수준기는 학교 온실을 짓는데 리용되였다. 이처럼 이들의 학습 열의는 날로 높아져 드디어 1학기 말에 가서는 원배와 신호도 우등생이 되였다.

《우리 분단 동무들은 모두가 우등, 최우등입니다.》 일학기 총화의 날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에 모두가 약속이나 한듯 《야!》하고 환성을 올렸다.

누가 먼저 박수를 쳤는지 교실안은 박수 소리와 함성으로 떠나갈듯했다.

그 속에는 누구 보다도 기뻐하며 힘껏 박수를 치는 원배와 신호도 있었다.

이것을 아십니까?

전기 절약을 위한 토막 지식

① 동무들은 전공 아저씨들이 전선을 이을 때 뻰찌로 꼬아 잇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 리유를 아십니까?

전류는 1초 동안에 30만 km라는 아주 빠른 속도로 흐른답니다. 때문에 전선이 잘 이여 지지 않은 곳에서는 전류가 제 속도로 흐르지 못하여 저항을 많이 받아 전기가 랑비된답니다. 때문에 전선은 서로 꼬아서 잘 잇는 것입니다.

② 동무들은 크루쇼크에서 전선을 사용하실 때 가는 전선이나 굵은 전선을 가리지 않고 리용하신 일이 없습니까?

많은 물이 강으로 흐를 때 강이 넓으면 쉽게 흐르고 강이 좁으면 미처 흐르지 못하여 옆으로 퍼지는 것과 같이 전선이 가늘면 많은 전기가 흐를 때 미처 흐르지 못하고 열로 변하여 전기가 랑비되는 수가 있답니다.

③ 왜 전선에다 고무를 씌우고 천을 씌우는지 아십니까?

또 전선을 가설할 때 사기 애자 (뚱딴지) 시링구 (사기 젖통) 등을 쓰는지 아십니까?

전기는 물이나 젖은 나무 및 땅 속으로 잘 흐릅니다. 때문에 비가 오거나 습기가 많을 때 전주나 습기 속으로 전기가 흘러 랑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쓰는 것이랍니다. 그리고 또 위험을 방지하는 데도 의의가 있습니다.

척척할아버지

일동—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척척 할아버지—오냐 오래 간만에들 찾아왔구나.

일동—할아버지 오늘은 우리 나라의 봄철 일기에 대해 좀 말씀해 주십시요.

척척 할아버지—오냐 좋은 문제이다. 누구나 자기 나라의 자연과 기후 조건을 알아야한다.

순애—할아버지 우리 나라는 봄철에 흔히 가물은데 어째서 그렇습니까?

척척할아버지—봄철에 우리 나라는 대체로 가물은 것이 특징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3월 하순에서부터 4월 중순 까지는 대체로 낮에는 따뜻하다. (평균 10도) 때문에 논밭에 아직 눈이 있을 때에도 3월 중순 이 되면 양지 쪽에는 푸른 풀이 돋아 나온다.

그러나 밤에는 기온이 3도 정도로 내려간다. 그것이 심하면 서리도 내릴 때가 있다. 특히 우리 나라는 4월부터 6월 초순까지는 기온은 높지만 비는 와도 아주 적게 온다.

순희—어째서 그런지 말씀해 주세요.

척척할아버지-우리 나라 봄철에는 몽고 지방을 중심으로 하는 대륙 고기압의 힘이 아직 상당히 크다. 그런데 봄이면 그 고기압의 일부가 떨어져 나와서 중국을 거쳐 우리 나라 남부를 자주 지나가게 된다. 그런데 이것이 일정한 기간을 두고 우리 나라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연달아 지나가기 때문에 대륙으로부터 우리 나라에 걸쳐 하나의 긴 띠 모양으로 된 고기압 구역이 이루워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라 부근에서 고압들의 사이가 거의 틈이 없기 때문에 저기압이 생겨 날 수 없고 중국 지방에서 생긴 저기압들도 우리 나라를 지나 갈 수 없다. 때문에 이 고기압의 영향을 받은 봄철에는 개인 날시가 계속되는 것이다. 그러나 걱정 할것 없다. 비가 오지 않아 농민들이 하늘만 쳐다보고 한숨만 짓던 세상은 이젠 옛날로 되였으니까, 당이 농촌에 수리화까지 해 주었으니 억년 가물을 모르는 농촌으로 되지 않았니,

동호—할아버지 이번엔 제가 묻겠어요, 우리 학교에서는 금년에 피마주, 해바라기도 많이 심고 또 감자와 옥수수도 많이 심으려고 해요. 봄날 날씨를 봐서 어떻게 심으면 좋을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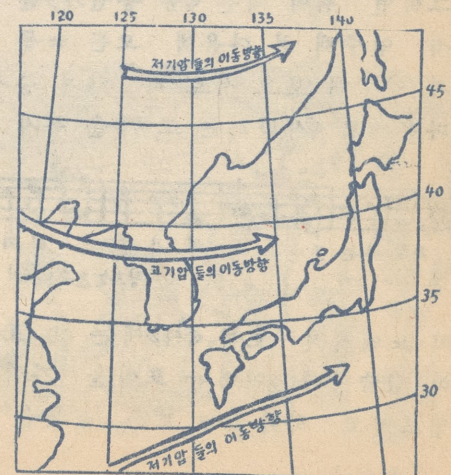
척척할아버지—감자라는 것은 빨리 심을 수록 싹이 빨리 나오며 알이 빨리 맺히기 시작하고 많이 달린다. 그렇기 때문에 봄에 얼음이 녹으면 곧 심어도 좋다.

동호—어째서 그렇습니까?

척척할아버지—그것은 감자는 5~8도에서 싹이 트기 시작하며 땅 속의 온도가 령하 2~3도 되여도 잘 얼지 않기 때문이다. 때문에 감자를 심고 흙을 잘 덮어 주면 얼지 않고 또 서리가 와도 피해를 받지 않는다. 우리 나라 북부 산지대에서는 3월 말부터 심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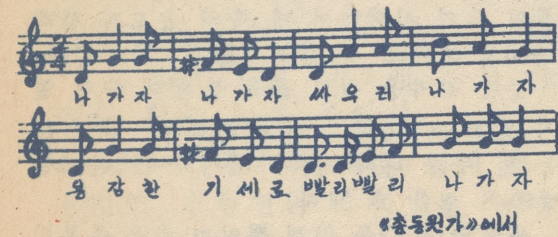
옥수수 씨앗을 일찍 뿌리면 늦은 봄부터 흔히 가물기 때문에 수분이 모자라 싹이 잘 나오지 못할 수도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평야 지대에서는 4월 1일부터 4월 20일 까지가 씨 뿌리기 좋으며 함북의 남북해안 지대에서는 4월 20일부터 30일 어간에 씨 뿌리는 것이 제일 좋다.

일동—할아버지 많이 알았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척척할아버지—다음에 또 오너라.

음악 이야기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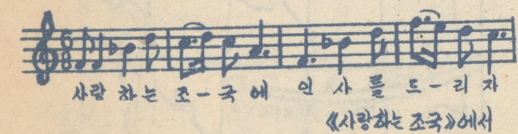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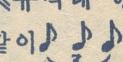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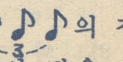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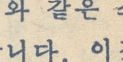
전 호에서 우리가 음의 높이와 명칭을 이야기할 때는 피아노나 풍금의 누르개들 중에서 흰 누르개에 해당하는 음의 높이와 명칭만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검은 누르개는 어떻게 사용하는가? 우리가 역시 잘 알고 있는 《총 동원가》를 놓고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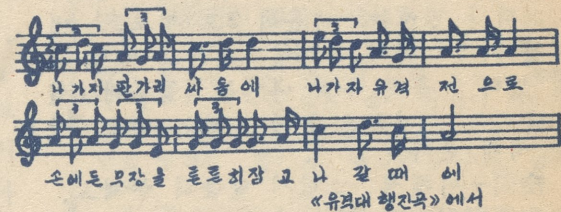
《총동원가》에서

이 노래에서 모든 《화》 앞에는 # 표식이 붙어 있습니다. 이런 표식을 가리켜서 올림 표라고 하며 모든 음들을 반음 높여 주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화》앞에 가 붙었다면 화—올림이라고 부르며 흰 누르개의 《화》에서 오른 쪽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검은 누르개를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위에 적은 《총 동원가》를 악기로서 연주해 본 다음에 모든 #를 떼고 다시 연주해 보고 서로 비교하여 봅시다.

다음으로 《사랑하는 조국》을 봅시다.

《사랑하는 조국》에서

이 노래에서 모든 《씨》에는 b 표식이 붙어 있습니다. 이러한 표식을 가리켜서 내림표라고 하며 b는 모든 음들을 반음 낮추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때문에 #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만약에 《씨》앞에 b가 붙었다면 《씨》에서 왼 쪽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검은누르개를 누르게 됩니다.

그런데 《총 동원가》에서의 모든 《화》에는 #가 붙어 있고 《사랑하는 조국》에서의 모든 《씨》에는 b가 붙어 있는데 이 #나 b를 매 번 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음높이표 다음에 한 번씩만 표시하면 《총 동원가》에서 모든 《화》는 《화—올림》으로 《사랑하는 조국》에서 모든 《씨》는 《씨—내림》으로 노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음 높이 표 다음에 표시하는 # 또는 b를 조성표라고 부릅니다.

《유격대 행진곡》에서

다음으로 우리는 《유격대 행진곡》에서의 후렴 부분에서와 같이♪♪♪(3)와 같은 소리표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8분 소리표 두 개의 길이 즉 4분 소리표 하나의 길이 만한 길이를 셋으로 나눈 길이를 표시한 것입니다. 즉♪♪♪(3)의 길이는 ♩의 길이와 같습니다. 이와 같은 소리표를 세가름 소리 표라고 합니다. 이것을 익히기 위하여서 악보를 보면서 《유격대 행진곡》을 불러 봅시다.

이상에서 우리는 악보를 보는데 필요한 간단한 상식을 알게 되였습니다. 물론

악보를 보기 위하여서는 이 밖에도 많은 것을 공부하여야 하지만 이런 것들을 모두 이야기 하자면 너무나 지면이 모자랍니다. 때문에 더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기회로 밀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꼭 이야기 해 두어야 할 것은 우리가 노래를 부름에 있어서 다만 악보에 적혀 있는 소리표에 의하여 기계적으로 음을 따라 부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노래에는 가사와 선률이 있습니다. 노래에서 선률이라 하면 가사는 말고 높고 낮은 여러 음들로서 이루어진 노래의 곡조를 말합니다.

노래에서의 내용은 가사와 함께 선률에도 담겨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노래에 담겨진 내용을 충분히 표현하기 위하여서는 가사를 정확하게 불러야 할 뿐만 아니라 선률도 정확하게 악보에 씌여 있는 대로 불러야 하며 선률에 담겨져 있는 감정을 충분히 나타 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또한 중요한 것은 음악에서 속도와 강 약을 잘 지키는 일입니다.

속도와 강약 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속도표

느리게
천천히
보통 속도로
약간 빠르게,
빠르게

강약표

pp—(피아니씨모)아주 약하게
p—(피아노)약하게
mp—(메조피아노)좀 강하게
mf—(메조 훠르테)좀 강하게
f—(훠르테) 강하게
ff—(훠르테씨모)아주 강하게
<—(그레쎈드) 점점 강하게
>—(데그레쎈드) 점점 약하게

만약 속도표와 강약표를 잘 지키지 않는다면 노래의 내용을 잘 전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잘못되게 부를 수 가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흥겨운 노래인 《유희가》를 부르는데 빠르고 경쾌하게 부를 대신에 아주 느리게 부르다든지 《자장가》를 부르는데 조용하고 천천히 부를 대신에 커다란 소리로 빠르게 부른다면 그 노래가 요구하는 감정을 충분히 나타내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듣기 싫게 만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래를 부를 때에는 항상 그 노래의 내용은 무엇이며 무엇을 노래하고 있으며 어떠한 감정으로 불러야 하겠는가 하는 것을 잘 알고 불러야 합니다. (끝)

금도끼와 쇠도끼

이 영화에서 우리는 칠성이처럼 일에 부지런하고 정직하며 마음씨 곱고 웃어른을 존경하는 사람들에게는 행복이 있고 만덕이처럼 일을 싫어하면서 욕심이 많고 게으른 사람에게는 불행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① 멀고 먼 옛날 어느 마을에 착하고 부지런한 칠성이와 일하기 싫어 하고 심술 궂은 만덕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병든 아버지를 모시고 고생을 이겨 가며 살아 가는 칠성이는 오늘도 나무하러 가려고 도끼를 갈고 있습니다.

② 나무를 하려고 산으로 간 칠성이는 이 나무 저 나무를 살피다가 마침 늪가에 마른 나무를 골라 잡아 찍기 시작했어요.

칠성이가 있는 힘을 다하여 나무를 찍는 순간 그만 도끼가 손에서 빠져 나와 깊은 늪 속에 점벙 빠져 버리고 말았어요.

③ 도끼를 잃어버린 칠성이는 안타까와 걱정을 하다가 그만 깜뚜무 잠이 들게 되였어요. 그런데 칠성이는 누가 가볍게 어깨를 두드리는 바람에 깜짝 놀라 눈을 떴어요.

그런데 이것이 웬일이겠습니까! 수염이 파파 흰 웬 할아버지가 눈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④ 칠성이는 무엇 때문에 그리 걱정을 하느냐고 묻는 할아버지에게 공손히 절을 하며 도끼를 늪에 빠뜨렸다고 하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번쩍이는 금도끼를 꺼내 보이며 《이것이 네 도끼가 아니냐?》 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정직한 칠성이는 자기 도끼는 쇠도끼라고 하였습니다.

⑤ 할아버지는 정직한 칠성이를 칭찬하시면서 다시 품 속에서 쇠도끼를 꺼내 주시고 어디론가 살아졌어요. 도끼를 찾은 칠성이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답니다. 그런데 쇠 도끼는 금시에 금도끼로 변해졌습니다. 집에 돌아 온 칠성이가 금도끼로 나무를 찍는 순간 은 금 보화와 새 옷들이 쏟어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⑥ 칠성이네 집에서 금빛이 흘러 나오는 것을 본 만덕이는 칠성이네집으로 달려 들어 갔답니다. 만덕이는 칠성이에게서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불이나게 도끼를 들고 산으로 달려 가는 것이였어요.

⑦ 씨근거리며 늪'가에 다달은 만덕이는 늪가의 작은 소나무를 뒤번 찍는 척하다가 일부로 도끼를 물에 집어 던졌어요. 늪'가에선 갑자기 신기하게도 회오리 바람이 일어났답니다.

⑧ 이윽하여 회오리 바람이 멎더니 할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만덕이는 할아버지 앞으로 다가 가서 도끼를 물에 빠뜨렸다고 하면서 눈물까지 뚝뚝 떨구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번쩍이는 금도끼와 쇠 도끼 두 개를 뵈이자 욕심쟁이 만덕이는 금 도끼가 제 것이라고 하였어요.

⑨ 금 도끼를 가지게된 만덕이는 기뻐서 집으로 달려 와 나무를 힘껏 찍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웬일이겠어요.

칠성이네처럼 은 금 보화가 나올 줄 알았더니 갑자기 요란한 우뢰 소리가 나며 돌맹이가 쏟아져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돌무지에 깔려 죽을 번한 만덕이는 눈물을 흘리며 겨우 빠져나왔답니다.

⑩ 착하고 부지런한 칠성이네 집은 날마다 행복해만 갔답니다.

아버지의 병도 나았고 아담하게 새로 지은 칠성이네 집 뒤'뜰에는 살구 꽃이 만발하게 피고 새들도 찾아 와 노래불렀어요.

칠성이네 창문'가에선 아침마다 칠성이의 행복한 노래 소리가 흘러 나왔답니다.

동요

봄

봄 바람이 솔솔
봄을 싣고 왔어요
종달새도 지종지종
봄을 노래하지요.

나무가지 뾰족뾰족
새움으로 웃고요.
시내'물은 졸졸졸
소리치며 흘러요

뜨락또르 통통통
조합벌을 갈고요.
협동마을 아저씨들
황금 종자 씨뿌리죠

오백만톤 풍년 싣고
봄은 찾아 왔어요
협동 벌에 풍년싣고
봄은 찾아 왔어요.

량강도 부전군
호반 중학교
곽 문철

만세 만세 불렀죠

칙칙 폭폭 기차는
달려 갑니다
집채 같은 큰 기계
가득 싣고서

《기차야 너는야
어델 가느냐?》
힘을 다해 소리쳐
물어 봤더니

필필이 필필이
옷감이 쏟아질
비날론 건설장에
달려 간대요

나는요 그만에야
기쁨에 넘쳐
두 손 높이 흔들어
만세만세 불렀죠

5.1절 그날에
필필이 쏟아질
비날론 폭포를
눈 앞에 보며

함남 함흥시 성천구역
해방 중학교단
박 수구

내가 심은 사과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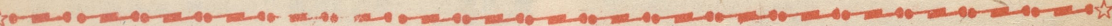
내가 심은 사과나무 올 해엔 다섯살
얼음장 풀리고 눈 녹아 내리니
날 보고 고마웁다 인사를 해요
지난 겨울 춥지 않게 돌보아 주어

봄 노래에 마추어 파란 움이 튼다고
아지마다 파릇파릇 인사를 해요

내가 심은 사과나무 올 해엔 다섯살
날보고 속삭이듯 부탁을 해요.
주렁주렁 열매가 가득 달릴 때
아지를 휘여 잡고 놀래우지 말라고
간절히 간절히 부탁을 해요.

내가 심은 사과나무 올 해엔 다섯살
날 보고 으시대며 부탁을 해요.
주렁주렁 열매가 맺거들랑은
빨갛게 익은 사과 고르고 골라
원수님께 선참으로 보내 달라고요

내가 심은 사과나무 올 해엔 다섯살
붉은 사과 주렁주렁 열리면요
인민들께 선물하고 외국 려행도 보낸다고
자꾸만 자꾸만 으시대여요.

자강도 장강군 랑림 중학교
김 상호

우리의 무선통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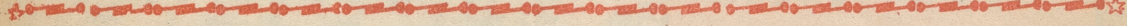
뒤떨어진 동무의 학습을 도와

여보세요? 소년단 편집부입니까? 네! 저는 황해북도 신평군 만년 중학교단 벽보주필 오 수복입니다.

우리 학교 2학년 1반 동무들은 《모범분단》 칭호 쟁취 운동에 궐기했는데 학습에서 뒤 떨어진 동무들을 잘 돕고 있습니다.

특히 황 웅두 동무는 분단에서 제일 뒤 떨어진 유옥숙 동무의 학습을 도와 주고 있는 데 모든 동무들의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황 웅두 동무는 먼저 옥숙 동무와 꼭 같이 생활 일과를 짜고 학교에서나 집에 가서 다 같이 공부하고 생활하면서 그날 배운 문제를 그날에 꼭 이깨워 줍니다. 그리고 시험 때도 남의 것을 보려거나 숙제도 남의 것을 베끼기 좋아하는 옥숙에게 학습을 무엇 때문에 하는가 하는 것을 잘 이야기 해 주어 지금은 진실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한자리에 같이 앉아 공부하는 데 옥숙이가 선생님의 설명을 미처 깨닫지 못하는 때는 곳 웅두가 설명해 주군 합니다. 그래 선생님이 어떤 질문을 하건 두 동무는 같이 손을 들군합니다. 지금 옥숙 동무는 우등에 가까운 성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책상, 걸상을 자기 몸처럼

여보세요? 소년단 편집부입니까? 저는 강원도 원산시 철산 중학교 통신원 림 창범입니다.

요즘 우리 학교 단에서는 소년 신문에 나온 강계 중학교 김 경섭 동무처럼 학교 재산을 애호하는 동무들이 날마다 늘어가고 있습니다.

2학년 1반 최 호익 동무는 일요일 날에도 아침 일찍 나와 아주 못쓰게 된 책상, 걸상을 모아 완전한 책상, 의자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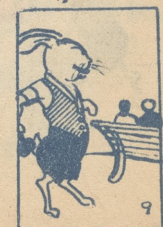
호익 동무는 이날 13조의 책상, 의자를 새것 처럼 고쳐 놓았습니다.

호익 동무네 분단 동무들은 이 모범을 본 받아 모든 동무들이 다 자기의 책상 걸상에 먹을 칠하고 윤이나게 닦았습니다.

네?…지금은 학교 전체 동무들이 다 이 모범을 본 받고 있습니다.

4 월호 현상 문제

영일이는 동생과 함께 외삼춘네 집으로 놀려 가다가 넓이 5메타의 다리 없는 도랑물을 만났습니다.

거기에는 기리 4메타의 판자 두 개가 놓여 있었지요.

도랑물은 너무도 깊어서 뛰여 넘지도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도랑을 건닐 수 있을까요?

그림을 그리고 설명하세요.

2호 현상 문제 답

11 개월 후입니다.

매달 2 배씩 늘어난다고 했으므로 11개월 후엔 절반 가득찼다가 12 개월 되면서는 2 배로 되여 가득 차게 됩니다.

☆ 현상 문제 당선자

평북도 곽산 유자녀 학원 김 하명
강원도 통천군 감동 중 학교 김 두철
평남도 순천군 순천 중 학교 조 계황
자강도 만포군 만포 초동 학원 김 금숙
자강도 시중군 시중 중 학교 안 룡하
평양시 동대원 중 학교 조 명국
함남 함흥시 반룡 중 학교 최 경애
황남도 삼천군 달천 중 학교 김 경순
량강도 보천군 김 일성 고중 명 교식
량강도 혜산시 위연 중학교 정 옥숙
평양시 승호구역 파룡 중학교 주 원길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소년 잡지
《소년단》 1961년 제 4 호 (총 138호)

편 집 위 원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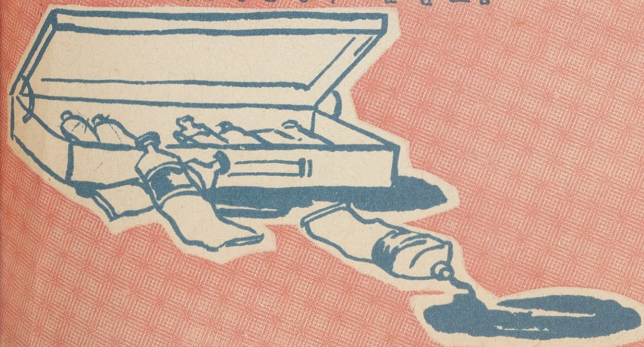
발행소 민 청 출 판 사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ㄱ—32131 값 25 전 150,000부 발행

우리들의 그림 페지

↑ 《100만 톤 알곡 증산을 우리들도 도와 나서자!》
함남 북청군 청충 중학교 단 박 해섭

↑ 《조합'벌에 봄이 왔다.》
상송 중학교 단 주 수만

↑ 《우리는 기술을 배운다.》
평남 강서군 강선 중학교 단 신 오남

↑ 《미군 나가라!》
평북 구성군 차홍 중학교 단 최 정상

조선화 《만 경 대》